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브라질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 동향 및 전망 2
3. 한국과의 무역관계 5
4. 한국과의 투자관계 6
5. 수입규제사례 8
6. 현지히트상품/방탄차 / 방탄유리 9
7. 현지히트상품/TFT LCD 모니터 10
8. 현지히트상품/프린트용 카트리지 11
9. 현지히트상품/휴대폰 13
10. 현지히트상품/DVR 14
11. 현지히트상품/인조가죽 15
12. 진출 성공/실패사례/LCD 모니터 진출 성공사례 17
13. 진출 성공/실패사례/휴대폰 차단기 진출 성공사례 18
14. 진출 성공/실패사례/패스트푸드 체인사업 실패사례 19
15. 주요이슈/메르코수르 추가할당관세 폐지 20
16. 주요이슈/메르코수르 안데안과 자유무역협정 타결 21

17. 주요이슈/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PIS/COFINS세 부과 논란 .. 22
18. 주요이슈/브라질 소득불균형 중남미 최고 23
19. 주요이슈/브라질-중국 경제협력관계 급진전 24
20. 주요이슈/브라질-EU와 협상재개 26
21. 주요이슈/부라질 중국과 자율수입제한조치 협상중 27
22.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28
23. 환전 29
24. 기후 30
25. 공휴일 31
26.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32
27. 호텔 32
28. 식당 34
29. 교통/통신/교통,통신 36
30. 유용한 연락처 37
31. 여행시 유의사항 39
32. 관광명소 40
33. 유용한 현지어 표현 42
34. 국토 45
35. 국민 45

36. 역사 46
37. 국가조직 47
38. 정치제도 47
39. 정치사회동향 49
40. 국가원수 49
41. 주요인사 50
42. 행정구역 52
43. 대외관계 52
44. 국가경쟁력 53
45. 도량형 53
46. 관공서 관행 54
47. 국제공항 및 항구 54
48. 매스미디어 55
49. 주한 주재국기관 56
50. 물가정보 56
51. 경제발전사 57
52. 경제정책 59
53. 금융통화제도 59
54. 주요산업동향/광업 61

55.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61
56. 지적재산권 62
57. 소비자보호 64
58. 수입관리제도 66
59. 관세제도 67
60. 통관절차 68
61. 유통구조 69
62. 국제입찰제도 69
63. 외환관리제도 70
64.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71
65.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72
66.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74
67. 투자유치정책 75
68. 외국인투자제한 76
69. 투자진출절차 76
70.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77
71. 공장설립 80
72. 산업단지/마나우스 산업단지 81
73. 자유무역지대 82

74. 조세제도 82
75. 사회간접자본 83
76. 노동여건 84
77. 사회보장제도 86
78. 현지 생활여건 87
79.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88
80. 자녀 교육여건 89
81. 진출기업/현지진출 한국기업 89
82. 주요경제지표 102
83. 대외거래지표/주요대외거래지표 102
84.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국별 수출입통계 103
8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품목별 수출입통계 . 104
8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추이 105
87.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105
88. 대외투자진출통계 106
89.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106
90.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투자교류통계 107
91. 물가금융지표 107
92. 노동통계 107

93.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108

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명	브라질 (BRAZIL) (현지어명 : Republica Federativa do Brasil)
위치	남미 동남부
면적	8,547천 ㎢ (세계 5위)
기후	남동부 : 아열대 (상파울루,리오데자네이로 등) 남부 : 온대 (빠라나,리오 그란데 두 술 등) 북부 : 열대기후로서 연중 고온다습 (아마존지역 등)
수도	브라질리아 (BRASILIA)
인구	184.577 천명 (2005년 9월 기준) (세계 5위)
주요도시	상파울루(10,406천명), 리오데자네이로(5,852천명) 살바도르(2,441천명), 벨로오리존찌(2,234천명) 포르딸레자(2,138천명), 브라질리아(2,043천명) 꾸리찌바(1,587천명), 헤시피 (1,422천명) 마나우스(1,404천명), 뽀르또알레그리(1,360천명)
인종	백인(54.0%), 갈색인(39.9%), 흑인(5.4%) 황색인(0.5%), 인디언(0.2%)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카톨릭(85%), 개신교(10%), 유대교, 토속신앙 등
독립일	1822년 9월 7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 - 취임일: 2003. 1. 1 - 임기: 4년

경제지표 (2004년 기준)

총GDP	US$5,980 억
성장률	4.9%
실업률	9.6%
인플레율	7.6% (IPCA기준)

화폐단위	헤알 (Real)
환율	US$ 1 = R$2.39 (2005.9.20일 현재)
외환보유고	US$ 529.4억
산업구조	농축산업(8.7%), 제조업(32.4%), 서비스업(58.9%)
교역규모	US$965억(수출), US$628억(수입) - 수출: 기계류, 자동차, 철강, 육류, 곡물, 철광석, 광물성연료, 사료, 항공기, 전기기기 등 - 수입: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유기화학품, 자동차, 비료, 플라스틱제품 등

한-브라질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63),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91) 항공협정('92), 외교관.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92) 관광협정('96), 항공협정 개정안('97년) 상용 투자 및 취재 복수사증 발급협정('97년) 일반사증면제협정발효('02년) , 한-브 범죄인인도조약발효('02년)
교역규모 (2004년 기준)	수 출 : 17억 9천만불 수 입 : 21억 9천만불 총교역액 : 39억 8천만불
주요 교역품목	수 출 :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가정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직물, 섬유사, 정밀화학 제품, 산업기계, 요업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수 입 : 농산물, 금속광물, 철강제품, 광물성연료, 수송기계,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석유화학제품, 비철금속제품 등
대브라질 투자	약 6억불
교민	약 4만 5천 명

2. 경제 동향 및 전망

1. 브라질 경제동향 및 전망

❑ GDP성장률

○ 1998년 브라질 경제위기 이후 브라질정부가 긴축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저성장 국면을 보였다.

○ 2004년의 경우 브라질정부의 콜금리 인하 및 경기부양책,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4.9% 성장했다. 2005년의 경우 세계경제 및 수출입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3.0~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GDP 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성장률	3.3	0.1	0.8	4.4	1.3	1.9	0.5	4.9	3.0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 (2005.9) * 전망치

❑ 금리

○ 룰라정부는 2003년 취임 초부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2003년 6월부터 콜금리 인하 추진했으나 물가불안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콜금리 인상 추진하였다.

○ 2005년 9월 16일 현재 콜금리는 19.50% 이다.

❑ 환율

○ 2002년 10월 대선정국 불안에 따라 환율이 최고 달러당 4.0 헤알까지 상승한바 있으나 2003년 룰라 정부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대외신뢰도 향상과 수출호조,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따라 환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2005년 9월 15일 현재 달러표시 헤알화 환율은 2.3292 헤알이다.

❑ 물가

○ 광역소비자물가지수(IPCA) 2002년 환율급등 현상에 따라 12.5%로 높아졌으나 2003년에는 경기둔화 및 환율안정으로 9.3%로 하락했고 2004년에는 7.6%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 물가상승률(IPCA) 추이 >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물가 상승율	6.0	7.7	12.5	9.3	7.6

자료원 : 브라질 중앙은행, (2005.9)

❑ 외국인 직접투자

○ 브라질은 2000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함께 개도국 중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이었으나 2001년부터 외국인투자가 민영화 종료단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경기둔화, 치안불안 등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2004년부터 브라질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경기회복 등에 따라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003년 101억불에서 2004년에는 182억불로 확대되었다.

< 대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억불)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107.9	189.9	288.6	285.8	327.8	224.0	166.0	101.4	181.7

자료원 : 브라질 중앙은행, (2005.9)

2. 브라질 교역동향 및 전망

❑ 2004년 교역동향

○ 2004년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965억불을 기록하고 수입은 30% 증가한 629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33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 2005년 교역동향 및 전망

○ 금년 9월말 현재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760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백7십억 달러를 기록했다.

○ 금년 브라질의 수출은 브라질기업들의 수출비중 확대 노력과 원자재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20억불을 기록하고 수입은 헤알화 강세현상 지속과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22.3% 증가한 768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의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	51,140	-3.5	57,763	-3.4	-6,624
1999	48,011	-6.1	49,295	-14.7	-1,283
2000	55,086	14.7	55,839	13.3	-753
2001	58,223	5.7	55,572	-0.4	2,651
2002	60,362	3.7	47,216	-15.0	13,143
2003	73,084	21.1	48,253	2.2	24,831
2004	96,475	32.0	62,779	30.0	33,696
2005.1-8	76.086	24.0	47,738	21.0	28,348

자료원 : 브라질 개발상공부, (2005.9)

3. 한국과의 무역관계

ㅇ 개 요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1990년 브라질 시장개방을 계기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4년 7월 1일 브라질 신경제정책(Real Plan)에 따른 고환율정책과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동맹 공식출범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및 시장확대,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1998년 하반기 브라질 금융위기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긴축재정정책 및 긴축금융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1999년 1월부터 고정환율제 (중앙은행 관리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브라질의 경기회복 및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 확대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ㅇ 최근 수출입동향

2005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한 13억 1천 7백만불을 기록하고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12억 7천 5백만불을 기록하여 4천만불의 적자 시현 중이다.

<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1	174	64.1	889	25.6	-715	1,063
1992	164	-5.6	797	-10.4	-633	961
1993	449	172.7	779	-2.2	-330	1,228
1994	844	88.2	1,019	30.6	-175	1,863
1995	1,519	79.9	1,388	36.2	131	2,907
1996	1,497	-1.4	1,325	-4.6	172	2,822
1997	1,711	14.3	1,239	-6.5	472	2,950
1998	1,792	4.7	693	-44.0	1,099	2,485
1999	1,209	-32.5	909	31.2	299	2,118
2000	1,724	42.6	935	2.8	789	2,659
2001	1,611	-6.5	1,126	20.4	486	2,737
2002	1,247	-22.6	1,248	10.9	-1	2,495
2003	1,137	-8.8	1,619	29.8	-482	2,756
2004	1,785	56.9	2,195	35.6	-410	3,980
2005.1-7	1,317	28.6	1,275	15.3	41	2,592

* 자료원 : KOTIS, (2005.9)

< 브라질의 10대 수입국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백만불,%)

국명	2002		2003		2004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미국	10,285	21.8	9,564	19.8	11,337	18.1
아르헨티나	4,747	10.1	4,673	9.7	5,572	8.9
독일	4,398	9.3	4,205	8.7	5,072	8.1
중국	1,554	3.3	2,148	4.5	3,710	5.9
나이제리아	1,091	2.3	1,493	3.1	3,499	5.6
일본	2,347	5.0	2,521	5.2	2,868	4.6
프랑스	1,742	3.7	1,764	3.7	2,284	3.6
이탈리아	1,757	3.7	1,753	3.6	2,048	3.3
알제리	1,014	2.2	1,114	2.3	1,935	3.1
한국	1,067	2.3	1,079	2.2	1,730	2.8
총계	47,232	100	48,260	100	62,782	100

*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5.1)

< 한-브라질 경제통상관계 협정체결 현황 >

일자	주요내용
1959.10	외교관계 수립
1963. 5.21	무역협정 발효
1967.10.20	문화협정 발효
1989. 9.28	공동위 설립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1991.11.21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1992. 2.10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발효
1992.12.30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1995. 9. 1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1995. 9. 1	투자보장협정 발효
1996. 9.12	정책협의회 설치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1996. 9.12	상용·투자 및 취재복수사증 발급협정 서명
1996. 9.12	관광협력협정 서명
1997.11.25	관광협력협정 발효
1997.12.25	상용·투자 및 취재복수사증 발급협정 발효

* 자료원 : 공관

4. 한국과의 투자관계

1. 개 요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동맹 공식출범 및 시장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가 1994년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5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회복 현상과 1996년 한국 정상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가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국내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브라질 투자현황

○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
- 현지투자진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포항제철, 동양 크레디텍, 서울전자통신 등이며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대브라질 현지투자진출 현황

업체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삼성전자	마나우스	칼라TV, 모니터, 하드디스크
	깜삐나스	핸드폰
삼성SDI	마나우스	브라운관, TV 및 모니터부품(DY), 휴대폰용 LCD모듈
LG전자	마나우스	칼라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따우바떼	모니터, 핸드폰, 광저장매체(CDR,CDRW)
포항제철	빅토리아	Pallet(CVRD와 합작)
동양크레디텍	상조제두스깜뿌스	TV브라운관용 부품
서울전자통신	마나우스	오디오용 트랜스포머,TV용 코일

* LG-필립스 : TV용 브라운관 생산

○ 제조업분야에 집중
- 2005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총 투자 신고액은 U$795백만(60건)임. 순투자금액은 U$366백만(49건)이며 제조업(U$306백만)분야에 집중됨.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건, 천불)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60	795,080	49	366,533
제조업	29	472,229	25	306,184
농림어업	1	23,780	0	0
광업	1	75,012	1	43,064
건설업	4	6,502	2	1,345
도소매업	11	71,549	9	9,561
운수창고업	4	774	3	389
통신업	3	135,268	2	2,183
숙박음식업	1	2,000	1	2,000
서비스업	5	7,555	5	1,605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05. 9월말 현재)

5. 수입규제사례

❑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 동향**

○ 브라질은 1990년 시장개방 조치 이후 수입규제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왔으나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동맹 출범을 계기로 수입규제조치를 완화시키고 있다.

○ 이후 1998년 브라질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당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입규제조치 보다는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명분으로 통관검사 강화, 최저가격제 도입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입규제를 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중국, 미국, EU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브라질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

○ 브라질의 현재 대 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나일론 6번 사(반덤핑) 1건이다.

해당품목	규제형태	규제일정	결과
나일론 6번사 (5402.4110)	반덤핑	- 제소 : '99.10월 - 조사개시 : '00.1월 - 확정판정 : '01.6.28 - 유효기간 : '06.6.28	ㅇ 반덤핑 판정 - 5.2%(태광산업) - 52.2%(기타업체) ㅇ 제소자 - Dupont사

< 브라질의 대한 연도별 신규 조사개시 추이>

년도	해당품목	규제형태	규제일정	결과
1999	나일론 6번사	반덤핑	- 제소 : '99.10월 - 조사개시 : '00.1월 - 확정판정 : '01.6.28 - 유효기간 : '06.6.28	ㅇ 반덤핑 판정 - 5.2%(태광산업) - 52.2%(기타업체) ㅇ 제소자 - Dupont사
2000	스텐레스 강관	반덤핑	- 조사개시 : '00.6월 - 확정판정 : '01.5.31	ㅇ 무혐의 처리
2001	PCV레진	반덤핑	- 조사개시 : '01.11.20 - 확정판정 : '02.11월	ㅇ 무혐의 처리 ㅇ 피소업체 : 한화화학 LG상사, 현대석유화학
2002	폴리 에스터 직물	수출자율 규제 (쿼터)	- 수입규제통보 : '02.10월 - 양자협의 : '02.11-12월 - 정부간합의 : '02.12월 - 확정판정 : '03.1.27 - 유효기간 : '04.12.31	ㅇ 수출자율규제(쿼터) - 2003년 : 15,606톤 - 2004년 : 16,855톤 ㅇ 제소자 - Sinditec직물조합
2004	PET레진	반덤핑	- 조사개시 : '04.3월 - 확정판정 : '04.7.7	ㅇ 무혐의 처리 ㅇ 피소업체 : 대우 인터내셔날, KMP 등

< 브라질의 수입규제 추이 >

시기	주요 수입규제 내용
1995.3.30	- 자동차,전자제품 등 109개 완제품 관세 인상(32%->70%)
1995.5.20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수입쿼터제 도입
1995.6.12	- 자동차 수입쿼터제 도입
1995.8.8	- 40개 직물류 수입결제조건을 L/C AT SIGHT으로 제한
1995.8.11	- 합성직물류와 3개 의류 품목의 관세율을 70%로 인상
1995.11	- 자동차 수입관세율 '96년 인하계획 철회(70% 수준 유지 결정)
1995.12.26	- 국내자동차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책 발표 . 국내생산업체의 자동차 수입시 관세 35% 적용 등
1995.12.26	- 수입타이어에 대한 품질 마크제 도입('97년부터 적용)
1996.4.29	- 불공정 수출행위 규제를 위한 덤핑조사법 제정 공포
1996.5.23	- 아시아산 직물에 대한 쿼터제 도입('96.6.1일부로 적용)
1996.7.3	- 완구류 수입관세 70%로 인상
1996.11.14	-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상
1997.4.1	- 연불수입제한조치 시행
1997.10.1	- 추가할당관세 3% 포인트 부과
2004.12.23	- 2004년부터 추가할당관세 제도 폐지

6. 현지히트상품/방탄차 / 방탄유리

브라질의 치안이 매우 불안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방탄차 및 방탄유리 구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브라질에서 최근 강도 및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경찰력이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강도 등 강력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류층들이 안전을 의식해서 자동차에 방탄장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류층에서조차 이러한 방탄차 선호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새 차를 사는 대신 방탄 처리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방탄자동차 전문판매점의 경우,평균 이틀에 1대 꼴로 중고방탄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파울루 내륙지방과 기타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탄자동차의 한계는 강도 등이 사용하는 총기의 화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방탄중고차의 안전은 새로 출고된 방탄자동차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중고방탄차 구입 외에도 방탄유리만을 장착하는 소비자들도 증가되고 있어 향후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중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방탄 처리된 중고차를 직접 브라질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방탄처리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 원재료, 방탄용 유리 및 방탄용 부품 등을 수출하면 브라질 시장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7. 현지히트상품/TFT LCD 모니터

1. 시장동향

브라질의 TFT-LCD 모니터시장은 금융계, 대기업, 언론계, 학계, 고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브라질의 TFT-LCD시장은 업체간 경쟁치열에 따른 가격인하와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TFT-LCD모니터시장은 현재 총 모니터시장의 5%에 지나지 않으나 적은 전력 소모량과 효율적인 업무공간 외에도 제조업체들의 가격인하 및 마케팅활동 강화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 브라질의 LCD 모니터 시장은 5만대로 전년대비 약 25% 성장했다.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니터 사이즈는 14~15인찌(약 72%)와 12인찌(약 25%)이나 최근 17인찌 등 중대형 LCD 모니터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대형제품이 사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점차 인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LCD모니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업체간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인데 브라질 LCD시장은 삼성전자, Waytech, LG전자, Philips, EMC-Proview, AOC, Sony 등이 현지 생산을 통해 현지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브라질의 LCD 모니터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선 LCD 모니터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해 일본의 60%와 미국의 50%와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과거 브라질 LCD 모니터 시장은 소니와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기업들이 마케팅 능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의 마케팅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현지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조립생산보다는 현지화 생산비율 제고를 통한 가격인하와 함께 소득계층에 따른 제품 차별화 전략, 홍보강화, 유통업체와의 제휴강화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수입동향

(NCM Code : 8471.6074) (단위 : US$천)

국가명	2001	2002	2003
미국	4,490	2,975	2,675
스웨덴	26	272	1,647
중국	338	339	1,450
한국	716	1,303	1,106
멕시코	105	565	520
대만	1,291	732	406
벨기에	223	43	175
총계	8,955	8,233	8,813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3.12)

3. 수입관리제도

NCM Code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8471.6074	18%	15%	18%

주 : 유통세의 경우 상파울로주 기준(NCM : 메르코수르공동관세코드)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5. 9월)

8. 현지히트상품/프린트용 카트리지

1. 시장동향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카트리지는 연간 약 2,300만개에 달하며 연간 카트리지 시장규모는 약 18억 헤알(약 6억불)이다.

아직까지 정품카트리지 시장이 가장 크나 정품시장은 감소추세에 있고 호환 카트리지의 경우 가장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생 카트리지의 경우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모조 카트리지의 경우 프린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감소 추세에 있다.

호환카트리지의 경우 전체 카트리지시장의 약 23%에 달하고 있다. 호환카트리지 가격은 정품의 약 7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재생카트리지의 경우 약 50%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모조제품의 경우 최근 브라질정부에서 모조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호환 카트리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정품 카트리지와 경쟁이 치열한데 정품보다 약 25%나 싼 호환성카트리지에 맞서 정품 카트리지 생산업체들도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정품 카트리지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HP 75%, Canon 12%, Lexmark 9%, 기타 4% 등으로 HP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호환 및 재생 잉크 가트리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아짐에 따라 호환 및 재생 카트리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주로 아시아에서 제조된 후 브라질에서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정품 카트리지 제조업체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호환 및 재생 카트리지제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의 호환 카트리지 생산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Helios Carbex사는 브라질 최초의 카트리지 생산업체로서 기존에 카트리지를 주로 중국,영국,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해왔으나 2002년 7월부터 4백만헤알을 투자해 카트리지 현지생산을 시작했다. 동사는 엡슨 프린터용 카트리지 모델 8개를 제조한 후 케논 모델용 카트리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잉크카트리지에 대한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대만, 중국, 홍콩, 멕시코, 한국 등이며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호환 및 재생 카트리지가 대부분이다.

브라질의 카트리지 수입업자들은 호환 및 재생 카트리지를 주로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한국산 품질이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카트리지의 경우 주로 정보기기 판매점, 대형슈퍼마켓,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품질이 낮은 호환 및 재생 카트리지의 경우 프린터를 손상시키거나 유통회사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이 필수적이다.

2. 수입동향

(NCM Code : 8473.3027) (단위 : 천불)

수입국	2001	2002	2003
미국	36,547	28,121	27,531
일본	7,610	7,233	8,740
싱가포르	2,805	8,538	6,989
아일랜드	472	2,618	5,860
대만	2,588	4,189	5,600
뽀르또리꼬	875	10,000	5,100
중국	2,121	3,262	4,466
홍콩	2,878	4,909	4,262
멕시코	4,473	3,110	2,258
한국	2,030	1,490	1,640
총계	67,612	80,880	76,956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3.12)

3. 수입관리제도

NCM Code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8473.3027	0%	5%	18%

주 : 유통세의 경우 상파울로주 기준 (NCM : 메르코수르공동관세코드)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5.9월)

9. 현지히트상품/휴대폰

1. 시장동향

브라질의 휴대폰 수는 2003년 말 현재 총 4,637만대로 전년대비 33%가 성장하였고 2004년에는 5,300대까지 증가했다. 브라질의 휴대폰에 대한 수요 확대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이는 국토가 넓어 유선통신망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수가 크게 증가한 배경은 업무상 휴대폰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사전 요금 지불 방식(Pre-pago)의 휴대폰을 대거 구입했기 때문이다. 프리페이드 휴대폰 비중은 2002년말 71.7%(2,500만대)에서 2003년 말에는 76.2%(3,536만대)로 급증했다.

브라질에서 휴대폰 사용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브라질리아 연방특구지역으로서 100명당 72.0대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사용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브라질 북부의 마랴냥주로 100명당 9.1대의 휴대폰만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상파울루주의 경우 31.6대, 리오 데 자네이로주의 경우 45.4대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의 휴대폰 구매층은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D"계층과 "E"계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대부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확대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로 수신용으로 휴대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도 브라질의 휴대폰 수는 6,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madeu Castro 브라질 이동통신협회(Acel) 회장은 휴대폰수가 향후 2년간 연평균 10%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이 업무상으로 프리페이드 휴대폰 사용을 크게 늘리는 등 저소득층이 브라질의 휴대폰 수요 확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을 겨냥한 마케팅 능력 제고 노력과 함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컨텐츠 보강 노력 강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시장 공략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에는 노키아, 모토롤라, 삼성전자, LG전자, 지멘스 등이 현지생산을 통해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카메라폰 등 고가제품의 경우 주로 수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CDMA의 경우 시장이 성숙단계로 볼 수 있으나 GSM의 경우 당분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휴대폰 수 및 PC 대수 >

(단위 : 백만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휴대폰수	15	22	27	31	46	53	60
PC	7.8	9.5	11.3	12.7	14.2	16.3	18.7

자료원 : E-consulting

2. 수입동향

(NCM Code : 8525.2022) (단위 : US$천)

국가명	2001	2002	2003
한국	3,830	9,385	28,097
덴마크	4	108	18,197
미국	4,798	1,598	13,232
핀란드	42	5,245	8,537
독일	77	2,236	4,752
중국	-	548	3,537
말레이지아	53	5,345	2,237
총계	13,583	30,300	84,488

자료원 : 브라질 관세청, (2003.12)

3. 수입관리제도

NCM Code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8525.2022	20%	15%	18%

주 : 유통세의 경우 상파울루주 기준(NCM : 메르코수르공동관세코드)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5.9월)

10. 현지히트상품/DVR

1. 시장동향

브라질의 치안불안에 따른 보안장비 수요증가와 업체간 경쟁치열로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보안장비 중 단순제품의 경우 현지조달 비중이 높으나 기술관련제품의 경우 약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관련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브라질의 보안장비 중 수입수요가 큰 품목은 경보장치,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이다.

DVR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실시간 영상을 확인, 녹화, 재생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아날로그 방식의 VCR제품의 대체 품목으로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은 주로 DVR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지생산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즉,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조립.생산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DVR에 대한 수요는 주로 은행, 기업, 소매점, 상업건물, 통신회사, 쇼핑센터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DVR제품의 주요 경쟁상대국으로는 미국, 중국, 대만 등이며 중국산과 대만산은 한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뒤지고 있다.

한국산 DVR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현지업체들도 한국업체와의 제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 수입동향

(NCM code : 8473.3049) (단위 : US$천)

국가명	2001	2002	2003
미국	70,312	47,551	49,508
한국	1,987	11,850	4,439
중국	4,701	2,569	4,284
멕시코	2,575	4,177	4,206
싱가포르	7,807	3,543	3,425
대만	7,718	5,473	3,065
총계	167,890	106,303	93,146

자료원 : 브라질 관세청, (2003.12)

3. 수입관리제도

NCM Code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8521.9010	0%	5%	18%
8521.9090	20%	15%	18%
8473.3049	15%	15%	18%

주 : 유통세의 경우 상파울루주 기준 (NCM : 메르코수르공동관세코드)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4.6.3일 현재)

11. 현지히트상품/인조가죽

1. 시장동향

브라질은 세계적인 신발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신발 원부자재 수요가 매우 크다. 신발

원부자재 중 천연가죽과 직물에 대한 수요는 현지생산을 통해 상당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폴리우레탄과 같은 인조가죽의 경우 현지 생산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브라질정부가 국민보건과 환경문제를 들어 PVC 사용을 점차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우레탄 인조가죽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의 폴리우레탄 인조가죽 수요는 신발제조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의 신발제조업체는 남성용 498개사(35.5%), 여성용 587개사(41.9%), 유아용 187개사(13.4%), 스포츠용 104개사(7.4%), 안전용 18개사(1.3%), 슬리퍼 7개사(0.5%) 등 총 1,401개사이다.

브라질의 인조가죽 주요 수입국은 이태리,미국,칠레,독일,한국,대만,일본 등이다. 브라질정부가 신발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어 향후 신발 원부자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의 신발외장재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슬리퍼에 주로 사용되는 PVC제외)는 아직까지 천연가죽으로 약 4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는 폴리우레탄 인조가죽으로 총 수요의 약 28.8%를 차지하며 여성용 신발의 경우 폴리우레탄 인조가죽 사용비중이 34.1%나 된다.

브라질의 신발내장재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료(슬리퍼에 주로 사용되는 PVC제외)는 폴리우레탄 인조가죽으로 총수요의 42.5%를 차지하며, 여성용신발의 경우 53.5%나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직물이 14%를 차지하고 가죽은 약 4%를 차지한다.

신발 바닥 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EVA로서 총수요의 30.6%를 차지한다. 폴리우레탄 인조가죽과 폴리우레탄의 경우 여성용 신발 바닥 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서 각각 18.7%와 18.0%를 차지한다.

2. 수입동향

(NCM Code : 3921.13) (단위 : US$천)

국가명	2001	2002	2003
이탈리아	447	2,201	2,921
미국	452	586	1,740
칠레	632	2,322	1,341
독일	180	323	1,069
한국	1,692	3,180	870
대만	133	384	512
일본	236	360	502
총계	5,730	10,131	10,379

자료원 : 브라질 관세청, (2004.1)

3. 수입관리제도

NCM Code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3921.1390	16%	15%	18%

주 : 유통세의 경우 상파울루주 기준(NCM : 메르코수르공동관세코드)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4.9월)

12. 진출 성공/실패사례/LCD 모니터 진출 성공사례

< LCD 모니터 진출 성공사례 >

1. 일반현황

S사는 1996년부터 브라질의 마나우스 현지공장에서 전자제품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휴대폰, 모니터, HDD 등 첨단 정보통신 제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S사는 브라질의 모니터시장이 일반 모니터에서 LCD 모니터로 빠르게 변화해 감에 따라 LCD 모니터 생산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2. 현지 마케팅전략

ㅇ 홍보전략

S사의 홍보전략은 “S사제품=첨단제품”이라는 개념하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주변을 포함한 주요 거리 옥외광고 및 카탈로그, 15개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이벤트 프로모션 행사시 주로 TFT-LCD 모니터와 휴대폰 위주로 홍보 또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COMDEX BRASIL 전시회에 대규모로 참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첨단 신제품 출시 전에 고급백화점을 중심으로 사전 제품홍보를 추진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ㅇ 제품전략

S사는 1996년 현지투자진출 이래 일반제품보다는 첨단기술을 요하는 고품질.고가제품 시장진출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 이는 브라질시장이 고가시장과 중저가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고 첨단제품의 경우 안정적인 시장형성이 가능하며 자사 제품특성을 고려할 때 고가제품 시장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CD 모니터의 제품전략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첨단디자인을 이용한 신제품 출시를 통하여 고소득층을 겨냥한 첨단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품생산 라인도 15,17,18,19,21,24 인치를 모두 포함한 Full line-up체제를 구축했으며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현지수요가 많은 15인치 제품이다.

ㅇ 유통전략

유통전략 역시 고가 첨단제품 취급 유통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즉, 첨단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토탈 서비스 제공업체(VAR)와 고급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자제품전문점을 통해 제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의의

S사는 L사와 함께 일반 브라운관을 브라질에 생산한 이후 2년 만에 브라질시장에서 최대 공급업체로 부상했으며 LCD 모니터의 경우도 2년 만에 최대 공급업체로 부상했다.

브라질의 LCD 모니터 시장이 최근 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첨단고가제품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제품의 시장확대가 유력시되고 있다.

13. 진출 성공/실패사례/휴대폰 차단기 진출 성공사례

< 휴대폰 차단기 진출 성공사례 >

1. 일반현황

S사는 직원이 8명에 불과한 한국의 소규모 정보통신업체이나 싱가포르,중국,나이지리아 진출에 이어 2002년에 브라질 최초의 교도소 내 휴대폰 차단장치 입찰에 성공한 업체이다.

동 사례는 기술력과 적극적인 시장진출 의지만 있다면 우리 IT 중소업체들도 중남미 최대 정보통신시장인 브라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브라질은 1998년 외환위기와 IMF 체제를 경험하면서 긴축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해왔고 이 과정에서 저성장과 빈부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치안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보안장비시장은 매년 약 20% 정도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불안, 교도소 수감 죄수 증가,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교도소 운영비 감축은 교도소 내 폭동증가로 있어졌다. 브라질정부는 죄수들이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을 취함으로써 5개 교도소에서 동시에 폭동이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도소 내 휴대폰 차단기 입찰을 추진해왔다.

상파울루시 인근의 과뮬류스 교도소는 전국의 1,500여 개 교도소 중 처음으로 교도소 내 휴대폰 차단기 입찰을 추진했으며 S사는 브라질 에이전트인 “브르덴”사와 함께 브라질 통신국(ANATEL)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2개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과뮬료스 교도소 내에 휴대폰 차단장치를 성공리에 설치했다.

2. 현지 진출전략

ㅇ 시장정보 조기입수 및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

S사는 교도소 내 휴대폰 차단기 입찰에 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에 적극 대응했다. 브라질의 주요 입찰정보는 극소수가 사전에 입찰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고 입찰준비기간도 1개월 내지 2개월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입찰정보 입수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찰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ㅇ 유능한 에이전트 물색

브라질은 시장정보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시장정보 입수가 매우 중요하고 입찰서가 주로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으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에이전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ㅇ 기술력 입증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IT강국으로 시장규모가 매우 크나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 등 IT 기술 선진국과의 제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중소 IT업체들에게는 기회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S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400메가Hz, 900메가Hz 주파수를 사용하는 TRS, 800메가 Hz를 사용하는 GSM, 1900메가 Hz를 사용하는 WLL 등 5개 밴드를 모두 동시에 차단하는 최첨단 휴대폰 통화 차단장치를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3. 의의

S사의 브라질 휴대폰 차단기 시장 진출은 기술력과 현지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 진출 성공/실패사례/패스트푸드 체인사업 실패사례

< 패스트푸드 체인사업 실패 사례 >

1. 일반현황

K사는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1만 1천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연간 매출액만도 89억불에 달하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망이다.

K사는 브라질이 중남미 최대시장으로서 브라질인들이 닭고기를 주식으로 즐기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1977년에 첫 번째 닭튀김 프랜차이징을 열었으나 판매부진으로 몇 년 후

문을 닫았다. K사는 1994년에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23개의 패스트푸드점을 열었으나 브라질의 닭고기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케팅 실패로 결국 1998년 초 다시 사업을 철수했다.

2. 현지시장 이해부족에 따른 마케팅 실패 사례

K사가 브라질시장에 매력을 느낀 것은 1) 거대한 닭고기 소비량(브라질은 세계적인 닭고기 생산 및 수출국임), 2) 패스트푸드업계의 막대한 영업이익, 3) 패스트푸드시장의 고성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KFC는 브라질인들이 1) 튀긴 닭고기를 잘 먹지 않고 구운 닭고기를 주로 먹으며, 2)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하며, 3) 현지 입맛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현지시장 진출에 실패했다.

KFC사는 브라질시장에 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브라질인들의 음식문화와 기호를 철저히 분석한 후 현지관련업체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브라질인들이 닭고기를 손으로 먹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포크나 칼 등을 이용해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닭고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 등 음식종류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3. 의의 및 전망

KFC의 브라질 패스트푸드시장 진출 실패사례는 브라질이라는 독특한 시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현지시장에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다.

K사는 과거 2차례에 걸친 실패를 통해 현지 닭고기 음식관행 및 입맛을 철저히 분석한 후 경험과 능력이 있는 현지업체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 K사의 브라질시장 진출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 주요이슈/메르코수르 추가할당관세 폐지

< 메르코수르 추가 할당관세 조치 폐지 >
- 수입관세 1.5% 포인트 인하 효과 -

메르코수르(Mercosur)가 1997년부터 부과해온 추가 할당관세 제도를 2004년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루이스 페르난도 풀란 브라질 상공개발부장관 겸 대외무역위원회(Camex) 위원장은 1997년부터 부과해온 추가 할당관세 1.5% 포인트 부과를 2004년 초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라 아시아산 제품의 범람을 막고 세수확대를

위해 대외공동관세(TEC)를 3% 포인트 인상시키는 추가 할당관세 조치를 도입했다. 즉 20%인 품목의 수입관세는 23%로 17%인 품목의 수입관세는 20%로 인상시켰다.

브라질정부는 1997년 추가 할당관세 조치 도입 당시만 해도 동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9년 추가 할당관세를 3% 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1년간 더 연장시켰고 2001년에는 1.5% 포인트로 2년간 더 연장시킨바 있다.

이번 브라질정부의 결정에 앞서 금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의에서 추가 할당관세 부과를 더 이상 연장치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브라질정부의 추가 할당관세 조치 폐지는 브라질 경제에 있어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수입관세 인하로 인플레 통제정책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수입관세를 통한 세수가 연방 총 세수의 약 5%에 불과해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추가 할당관세조치 폐지로 수입관세가 1.5% 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2004년부터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Folha de Sao Paulo (2003.12.24)
작성자 : 상파울루무역관 황기상(kshwang@kotra.or.kr)

16. 주요이슈/메르코수르 안데안과 자유무역협정 타결

< 메르코수르, 안데안과 자유무역협정 타결 >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시장 타격 전망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안공동체(Ancom) 대표들이 양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주 말 공식 합의함으로써 남미대륙이 단일 경제권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양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은 오는 7월 1일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개최될 예정인 양 지역간 회의에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키토 회의는 미국과 메르코수르 간의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진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협상에 앞서 남미 단일경제권이 탄생하게 돼 향후 미국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8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협상으로 양 지역은 3억 5천만명의 인구와 8,5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가진 중남미 최대 단일 경제블럭으로 탄생하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안데안공동체 회원국 중 이미 볼리비아 및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양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공식화됐다.

양 지역은 향후 10년간 교역품의 80%를 무관세화할 계획이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15년 내에 완전 무역자유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메르코수르의 민감품목은 철강, 직물, 종이 등이며 안데안공동체의 민감품목은 밀, 대두, 자동차 등이다.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은 메르코수르-안데안공동체 자유무역지대 창설협상보다 2년 앞서 시작 됐으나 2005년 1월 창설시한을 맞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지난주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미국과 메르코수르간 회의에서 양 측은 서로 상대방의 유연성 부족을 비난하면서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바 있다.

메르코수르는 안데안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1억 9백만명의 소비시장과 400억 달러의 수입시장을 열게 됐고 양 지역간 교역액은 2002년 기준으로 58억달러이며 메르코수르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29억달러이다.

메르코수르가 안데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른 배경에는 안데안이 브라질의 주요 제조업 제품 수출시장 중에 하나이고 미국이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물론 콜롬비아와 5월부터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안데안시장에서 브라질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왔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부장관도 최근 미국과 안데안간의 자유무역협상이 메르코수르가 안데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른 요인 중에 하나란 점을 시인한바 있다.

이번 메르코수르와 안데안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남미시장 역내국간의 교역확대는 물론 향후 미국과 안데안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남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칠레 외의 남미 국가들과 추가 FTA협정 체결 및 투자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원 : Gazeta Mercantil (2004.4.6)
작성자 : 상파울루무역관 황기상 (kshwang@kotra.or.kr)

17. 주요이슈/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PIS/COFINS세 부과 논란

<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PIS/COFINS세 부과 논란 >
- 아르헨티나, WTO에 제소 검토 중 -

올 5월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는 사회통합계획기여세(PIS)와 사회안정기금 기여세(Cofins)에 대한 논란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국내기업에만 부과돼 오던 PIS세와 Cofins세를 조세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수입품에 대해서도 올 5월 1일부터 부과키로 결정했다. PIS세의 경우 기존대로 1.65%를 유지했으나 Cofins세의 경우 5월 1일부터 기존의 3%에서 7.6%로 4.6% 포인트 인상시켰다.

Veirano Advogados의 세르지오 쁘레스따(Sergio Presta) 변호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정부가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키로 결정한 PIS세와 Cofins세 부과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쁘레스따 변호사는 브라질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한 화학제품 회사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동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세금 부과에 따른 이

회사의 손실액이 연간 1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쁘레스따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브라질을 WTO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고객이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수입품에 대한 PIS세와 Cofins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우선 수입품의 경우 국내산과 달리 이 세금부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수입품의 경우 수입관세(II), 공산품세(IPI), 유통세(ICMS), PIS, Cofins 등이 누진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PIS세와 Cofins세 부과효과는 9.25%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 세금은 원칙적으로 수입상이 지불하지만 수입상은 이 세금 부과로 최종제품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상에게 수출단가 인하를 요청하게 됨으로써 수출상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 PIS세와 Cofins세 부과로 브라질 현지업체들이 상당부분 5월달을 기해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 세금 부과효과가 일부분 상쇄되고는 있으나 수입단가 하락이나 수입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PIS세와 Cofins세 부과는 세수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수입품 가격인상을 통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국들이 보호무역장벽으로 철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Gazeta Mercantil (2004.5.14)
작성자 : 상파울루무역관 황기상(kshwang@kotra.or.kr)

18. 주요이슈/브라질 소득불균형 중남미 최고

< 브라질,소득 불균형 중남미 최고 >
- 경기둔화 및 실업률 확대에 따라
소득 불균형으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으로 크게 양분돼 -

브라질의 소득분배 불균형 상태가 중남미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지니지수(0에서 1까지의 지수로 1은 최고 수준의 불균형을 의미)는 0.59로 중남미국가 중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 이어 지니지수가 높은 국가는 과테말라(0.58)와 콜롬비아(0.57)로 나타났으며 중남미 국가중 소득 분배가 가장 양호한 국가는 우루과이(0.44)와 코스타리카(0.46)로 나타 났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중남미의 소득분배 불균형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중남미 국가 중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양호한 국가수준이 동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한 최고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7.2%를 차지하고 있고 20%에 달하는 빈곤층이 전체 소득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전체적으로는 10%의 최고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20%의 빈곤층이 전체 소득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소득불균형 현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브라질 정부가 긴축재정정책 및 긴축통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으로써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소득불균형 현상 가속화는 중산층을 약화시킴으로써 브라질시장이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으로 크게 양분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라질의 소득불균형 현상과 함께 브라질시장의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으로의 양분화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한 고가시장 공략강화 전략과 함께 저가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전략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O Estado de Sao Paulo(2004.5.15)
작성자 : 상파울루무역관 황기상(kshwang@kotra.or.kr)

19. 주요이슈/브라질-중국 경제협력관계 급진전

< 브라질-중국,경제협력 관계 급진전 >
- 룰라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
- 21개 협정문 서명, 양국간 교역 및 동반자관계 확대될 듯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을 계기로 브라질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각료 7명과 주지사 5명 등 정부 대표와 400명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브라질 사상최대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3일부터 27일간 5일간의 중국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 취임 500일 기념 TV 연설에서 중국 방문일정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번 중국방문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룰라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사활을 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라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 브라질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브라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브라질-중국간의 동반자적 관계 강화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 국제관계에서 브라질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등 룰라 정부의 숙제인 국내 경제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 이틀째인 24일 브라질 정부와 중국정부는 7개 협정문에 공식 증명했고, 양국 기업인들도 14개 협력협정서에 서명했다.

ㅇ 정부간 7개 협정문
- 검역안전에 관한 상호협력

- 브라질 · 중국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 농업 및 철도 인프라 협력
- 범죄인 조사 협력
- 위생검사 분야 협력
- 상용비자 발급 완화
- 스포츠분야 협력

ㅇ 기업간 14개 협정문

- 발리 도 히오 도씨 철강회사와 상하이 바오스틸(Baosteel)사간의 380만톤 규모의 브라질 마랴냐웅주 상루이스 철강회사 설립 및 브라질 수출용 중국 석탄 개발
- 중국, 브라질 및 제3국용 석탄개발에 발리 도 히오 도씨 철강회사와 양쿠앙(Yankuang)사간 제휴
- Yongcheng 석탄회사.상하이 바이오스틸.발리사간 석탄 생산 공동투자
- 중국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을 위한 발리사와 중국알루미늄공사(Chalco)간 합작투자
- 에콰도르와 이란을 시작으로 제3국에서의 석유시추를 위한 페뜨로브라스 사와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ipec)간 전략적 협력관계
- 중국남부화력발전공사를 통한 브라질 히오 그란지 두 술주 까쇼에이라 두술 화력발전소 건설
- 빠라철강회사와 민메탈(Minmetal)상사를 통한 대중국 브라질 철광석 수출
- 브라질산 선철, 면화, 설탕, 대리석과 중국산 석탄, 철도장비 교역을 위한 Comexport 사와 중국 브라질 투자 개발회사간의 협력
- 양국기업간 합작투자 금융지원을 위한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중국 Citic 은행간의 양해각서
- 브라질자전거회사와 중국의 Jinan Qingqi 오토바이회사를 통한 브라질에서의 오토바이 생산
- 브라질의 뗄레마르(Telemar Norte Leste) 통신회사와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사간 국제로밍협정을 위한 양해각서
- 브라질의 바리기(Varig)항공사와 에어차이나(Air China) 항공사간 양국간 정기항공편 운항
- 브라질공업연맹(CNI)과 중국기업연맹간의 협력
- 브라질의 뜨레스 마리아스상사와 Chinapack Hua Yuan사를 통한 중국내 브라질 커피 판매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1998년 9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5억달러로 연평균 80%씩 증가해 왔으며, 중국이 미국 및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라질의 제3위 수출대상국이 됐고 금년에는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브라질의 제2위 수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 비중도 1998년 1.8%에서 지난해에는 6.2%로 급상승 했으며 대중국 수입비중도 1998년 1.8%에서 지난해에는 4.5%로 급증했다.

이번 룰라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은 연초 인도 방문에 이은 것으로써 룰라 대통령의 남남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금년 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BRICs 국가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 경제계 일각에서는 개도국인 브라질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저가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중국보다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 등 G-7 국가와의 경협증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이 콩,철강석 등 원자재에 집중돼 있고 중국산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도 최근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메르코수르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확대보다는 중국의 대브라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정책은 중국견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와도 충돌이 불가피해 향후 미국의 대응책도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브라질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룰라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국 붐이 강화되면서 브라질 기업인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 확대 기반 마련과 함께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브라질과 중국에서의 공동합작사업 추진으로 기업간 협력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브라질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자원개발은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의 협력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O Estado de Sao Paulo(2004.5.25)
작성자 : 상파울루무역관 황기상(kshwang@kotra.or.kr)

20. 주요이슈/브라질-EU와 협상재개

< 메르코술, EU 와 무역협상 재개 >
- Mercosul, 자동차 통신 금융시장 개방 VS EU, 농산물시장 개방 -

협상이 결렬된지 1 년 만에 메르코술(Mercosul)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간다.

2004 년 10 월 첫 협상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처음으로 9 월 1 일, 무역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간의 의견조정을 필두로, 9 월 2 일에는 메르코술과 유럽연합 각료들이 재협상 전략 회의를 갖는다. 브라질 측에서는 Celso Amorim 외무부 장관과 Luiz Furlan 상공개발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 전날인 8 월 31 일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통신, 금융서비스 부문개방에 있어서 유럽연합에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급부로 브라질은 유럽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예정인데 동 조건이 선행되어야 아직도 협상에 부정적인 브라질 산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술 국가들은 유럽연합측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하여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경우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농산물 개방관련 진전이 있어야 산업계는 금번 협상 이후 격심해질 유럽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 협정에서 메르코술 자동차업계의 양보가 이루어진 것은 과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생산자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미 유럽산 차량에 대한 쿼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훨씬 반대가 거세며 아르헨티나 정부도 2 년 전 경제위기에서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익이 없을 경우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경우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아직 유럽연합측은 농산물 시장개방 관련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 전날인 8 월 31 일 유럽연합은 사전회의를 갖고 메르코술과의 협상전략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 측의 찬성론자들은 2006 년 5 월 개최될 유럽남미 정상회담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반면, 상당수의 반대파들은 무역협정이 현재 어느 부분까지 가능할지 분위기 파악하는 정도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작년에 메르코술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자국 농산품에 대하여 관세를 줄이고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유럽연합이 전제조건을 제시했던 것과 같은 장애물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쿼터를 넘는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수출시 그만큼을 제외하고 수출한다는 조항삽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올 12 월 148 개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WTO 각료회의에서 농산품 수출에 대한 세계무역 자유화 등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나 메르코술 양측 모두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WTO 회의 사전에 두 경제블럭 간의 의견차를 협소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으로 본다고 밝혔다.

21. 주요이슈/부라질 중국과 자율수입제한조치 협상중

< 브라질, 중국과 자율수입제한조치 협상 중 >
- 세이프가드 와는 별개로 진행되어 -

중국이 브라질로 수출되는 자국산 제품에 대하여 자율적 제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무역부 장관은 브라질 상공개발부 장관에게 보낸 8월 24일자 서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브라질 상공개발부 산하 대외무역부(Secex)에서는 중국 수입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각 산업분야별로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8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해 가장 손해를 입은 산업분야는 섬유, 의류, 신발, 안경, 장난감 및 기계류이다. 각 분야들은 중국산 제품이 브라질 시장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윤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대외무역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브라질 대외무역부(Secex)는 금번 협정은 세이프가드조치 제정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세이프가드 조례는 두 달 전 정무부에서 제정되어 대외무역위원회 (Camex)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현재까지 공표는 되고 있지 않다.

금년 7월까지 브라질 내 중국산 제품 수입은 2004년 대비 48%나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5.5%에서 6.9%로 증가하였다.

금번 수입제한조치 협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반대하는 이들은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국과 동 협상체결시 아르헨티나와의 무역에서 브라질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 섬유협회(ABIT)의 Josue Gomes da Silva 회장은 동 협상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년 브라질 섬유분야에서의 중국제품 수입량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8천 2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섬유, 여성용 합성섬유 편직물바지, 남성용 면직물 바지 부분에서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Gomes 회장은 중국이 동 쿼터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 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세이프가드 조례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브라질 기계협회(ABIMAQ)의 Newton de Mellos 회장은 중국산 플라스틱 사출기 수입쿼터제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2003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사출기가 2004년 500대, 2005년도에는 1,200대까지 수입이 급증하였다. 기계협회는 대 브라질 중국산 플라스틱 사출기 수입량을 300대 수준으로 제한요청할 예정이다.

브라질 신발협회(Abicalcados)의 Heitor Klein 이사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중국정부와 자율적 수입제한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발협회에서도 특히 운동화, 인조가죽 신발, 남성용 가죽신발 등을 위시한 중국산 신발수입 증가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브라질과 중국이 논할 수입제한조치는 EU와 중국의 대 EU 중국섬유 제한조치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EU간의 조치는 금년 6월에 이뤄졌는데 중국산 블라우스, 티셔츠, 브레이지어 등은 벌써 쿼터의 70%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유럽연합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업 분야별로 제출한 피해내용을 바탕으로 푸를란(Furlan) 상공개발부 장관은 9월 하순 중국방문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자율 제한범위를 중국 무역부 장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22.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ㅇ 비 자

일반여권의 경우 일반사증면제협정 발효(2002.5.20)로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 할 수 있다. 관용여권의 경우 외교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1992.8.11)로 비자가 필요 없다.

- 비자 발급처 : 주한 브라질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41 인 갤러리 빌딩 4,5층
. 전화 : (02) 738-4970
. 팩스 : (02) 738-4974

ㅇ 출입국 절차

출입국 절차는 간편하고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여행객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는 많지 않으나 세관원이 제품이나 샘플 등을 소지했다고 판단 시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함으로서 세일즈 출장자들이 소지하는 샘플 등에 대해서는 서류를 갖춰 통관해야 입국이나 출국 시 말썽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ㅇ 출입국 유의사항

휴대품이 여행용 가방이 아닌 카툰박스 등과 같이 제품 휴대로 보일 경우 대부분 검색대상이 되므로 여행용 가방 등에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세통관 불허품목으로는 전자제품, 광학기기 등과 사치품 등이며 세관 영치 후 출국 시 반출하거나 간이 수입절차 수속 후 반입한다. 출국시 납부해야 하는 공항세는 104헤알(약 43불)이다.

ㅇ 예방접종

한국에서 방문 시 별도의 예방접종 문제는 없으나 아마존 밀림지대로 여행시 1주일 전까지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콜레라 등의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페루, 에콰도르, 아프리카 등지를 거쳐올 경우 황열병 접종카드가 필요하다.

23. 환전

ㅇ 화폐단위

브라질의 화폐단위는 헤알(Real)로서 약칭은 R$이며, 1헤알 이상은 헤아이스(Reais)로 복수형을 쓴다. 지폐는 1헤알, 2헤알, 10헤알, 50헤알, 100헤알 등이 있고 동전은 1센따보, 5센따보, 10센따보, 25센따보, 50센따보, 1헤알 등이 있다.

ㅇ 브라질 화폐 약사

시기	주요내용
1986. 2월	- CRUZEIRO(Cr)에서 CRUZADO(Cz)로 변경 1,000 Cr=1 Cz
1989. 1월	- CRUZADO에서 NOVO CRUZADO(Ncz)로 변경 1,000 Cz=1 Ncz
1990. 3월	- NOVO CRUZADO에서 CRUZEIRO(Cr$)로 변경
1993. 8월	- CRUZEIRO에서 CRUZEIRO REAL(CR$)로 변경 1,000Cr$=1 CR$
1994. 7월	- CRUZEIRO REAL에서 REAL(R$)로 변경, 2,750CR$=R$ 1 . 고정환율제 도입 . 환율을 US$1=R$0.85로 시작하여 매년 환율밴드 고시.
1999. 1월	- 변동환율제 전환 . 1998년 말 금융위기로 중앙은행의 환율방어가 어려워지자 변동환율제 전환

ㅇ 환율 (2005.9. 15일 현재)

구분	매입	매도
공정환율(무역환율)	2.3261	2.3269
시장환율(암시세환율)	2.480	2.50

자 료 원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환율 : R$/US$

ㅇ 환전

환전은 은행, 환전소, 여행사, 호텔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환율은 일반적으로 여행사, 환전소, 은행, 호텔 순으로 높다. 브라질은 치안이 불안한 만큼 현금소지는 가급적 줄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기후

ㅇ 기후 특성

브라질의 연평균 기온은 23-24 °C이며,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지역마다 기후가 다소 차이가 있다. 브라질 최대 상공업도시인 상파울루시의 경우 여름 평균기온은 21 °C이고 겨울의 경우14 °C이다.

국토면적이 넓어 열대기후에서 온대에 이르기까지 기후가 다양하다. 또한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하여 북반구에 있는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이다. 즉 한국이 겨울일 때 브라질은 여름이 된다.

ㅇ 지역별 기후

남동부지역(상파울루, 히오데자네이로, 미나스제라이스주 등)은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남부는 온대에 속하고 북부에 위치한 아마존강 지역은 전형적인 열대기후로서 연중 고온 다습하며, 본격적인 우기는 1- 6월이다. 중앙부의 고원에는 비교적 비가 적으며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구별된다.

ㅇ 출장 시 추천복장

지역별로 기후차이가 있어 출장 시 공통적으로 복장 추천을 하기는 어려우나 상업과 비지니스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지역의 경우 여름(12-2월)에는 여름용 정장 외에도 가벼운 티셔츠 등을 준비하면 좋다. 한국의 여름은 습기가 많아 무더운데 반해, 상파울루의 경우 여름에 습기가 많지 않아 지내기가 훨씬 쾌적한 편이다.

겨울(6-8월)에는 추동복을 준비하되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두꺼운 코트 등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단, 일교차가 심해 밤이 되면 쌀쌀한 편이므로 가벼운 잠바나 두터운 옷을 준비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9-11월)과 가을(3-5월)의 경우 날씨가 비교적 따스해 티셔츠나 엷은 긴 소매 정도를 준비하면 무난하다.

25. 공휴일

ㅇ 휴일 지정방식

브라질의 휴일은 연방차원의 휴일과 지방 자치단체차원의 휴일로 양분되며 휴일은 해당연도 이전에 정해진다.

즉, 매년 동일한 법정공휴일이 있고 매년 시기가 변경되는 휴일로 양분되나 휴일이 규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차년도 공휴일을 사전에 알 수 있다.

ㅇ 2004/2005년도 법정 공휴일

휴일 명	2004년	2005년	비고
신정	1.1	1.1	
상파울루시립 공휴일	1.25	1.25	
카니발(삼바축제)	2.23-24	2.7-8	
성금요일	4.9	3.25	매년 변경
부활절	4.11	3.27	매년 변경
Tiradentes 기념일	4.21	4.21	
근로자의 날	5.1	5.1	
성체일	6.10	5.25	매년 변경
상파울루 혁명기념일	7.9	7.9	
독립기념일	9.7	9.7	
성모마리아의 날	10.12	10.12	
성묘일	11.2	11.2	
공화국선포일	11.15	11.15	
성탄절	12.25	12.25	

* 주 : 각 지방별로 1-3일의 기념일이 있음
* 주 : 카니발기간 다음날 오전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ㅇ출장 고려기간

브라질은 직장별로 30일간의 휴가가 의무적이며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휴가를 사용한다. 통상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를 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삼바축제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12월 중순부터 차년도 1월까지는 출장시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2월 또는 3월초에 있는 삼바 축제기간도 휴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6.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ㅇ 시차

한국과 브라질 시차는 12시간이며 브라질이 12시간 늦다. 즉 한국이 밤 12시일 경우 브라질은 정오12시이다. 하절기(10-2월)에 실시되는 써머타임 기간 중에는 브라질이 한국보다 11시간 늦다.

ㅇ 써머타임

2005/2006년 써머타임은 2005. 10.16 – 2006. 2. 19까지이다. 써머타임 해당지역은 상파울루, 리오 데 자네이로, 브라질이아, 히오그란지 두 술 주(州)를 포함한 주요 지역이 해당된다.

ㅇ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9:00시부터 18:00시까지이며 백화점, 주유소, 가게 등을 제외하고 토요일은 휴무이다. 은행의 경우 09:00시부터 16:00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7. 호텔

ㅇ 호텔 투숙 시 참고사항

대부분의 호텔은 호텔요금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으나,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호텔체크인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1불(현지화의 경우 2헤알) 정도 팁을 지불하면 된다.

여타 국가의 호텔투숙 시와 마찬가지로, 호텔 내 냉장고에서 음료수나 음식을 꺼내 먹으면 호텔비 외에 별도 추가요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호텔투숙 시 침실청소 시에 머리맡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1불 정도를 두는 것이 에티켓이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ㅇ 주요 호텔

호텔명 : RENAISSANCE SAO PAULO HOTEL
주 소 : AL. SANTOS, 2233,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069-2233/3059
팩 스 : (55-11)3064-3344/3069-3325
홈페이지 : http://marriott.com/property/propertypage/SAOBR

호텔명 : INTERCONTINENTAL SAO PAULO
주 소 : ALAMENDA SANTOS, 1123, JD. PAULISTA,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179-2600
팩 스 : (55-11)3179-2666/2619
홈페이지 : http://www.ichotelsgroup.com/h/d/ic/1/en/hd/saoha

호텔명 : TRANSAMERICA SAO PAULO
주 소 : AV. NACOES UNIDAS, 18591, SANTO AMARO,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5693-4511/4050
팩 스 : (55-11)5693-4882/4990
홈페이지 : www.transamerica.com.br

호텔명 : Hotel Jaragua
주 소 : R. Martin Fontes 71,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120-8000
팩 스 : (55-11)3120-8026
홈페이지 : www.jaraguahotel.com.br

호텔명 : Gran Melia Mofarrej
주 소 : Al. Santos 1437,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146-5900
팩 스 : (55-11)3262-3368
홈페이지 : www.granmeliamofarrej.solmelia.com

호텔명 : SAO PAULO HILTON MORUMBI HOTEL
주 소 : AV.DAS NACOES UNIDAS,12901,MORUMBI,SAO PAULO,SP,BRAZIL
전 화 : (55-11)6848-0000
팩 스 : (55-11)6848-0001
홈페이지 : http://www.hilton.com/en/hi/hotels/index.jhtml?ctyhocn=SAOMOHI

호텔명 : CROWNE PLAZA
주 소 : RUA FREI CANECA, 1360,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253-2244/3179-8023
팩 스 : (55-11)3251-3121/3253-7199
홈페이지 : www.sao-paulo.crowneplaza.com

호텔명 : DELLA VOLPE GARDEN HOTEL
주 소 : RUA FREI CANECA, 1199,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549-6464
팩 스 : (55-11)3288-8710

호텔명 : GINZA HOTEL
주 소 : RUA GALVAO BUENO, 700, LIBERDADE, SAO PAULO, SP, BRAZIL
전 화 : (55-11)3277-7211
팩 스 : (55-11)3277-3953

(상파울루 시내의 주요 호텔만을 명기하였으며,기타 지역 출장 시 에는 현지 여행사 등에 의뢰하면 출장지 투숙호텔을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28. 식당

ㅇ 한식당

- 조선옥
  주소 : Av. Aclimacao,502,Aclimacao,Sao Paulo
  전화 : 3271-9621,9851-0978
  주요메뉴 : 정식, 찌개류, 불고기 등

- 우래미
  주소 : Rua Safira, 45, Aclimacao
  전화 : 3271-5339
  주요메뉴 : 암소 한마리, 쌈밥, 찌개류 등

- 월궁
  주소 : AV. ARMANDO FERRENTINI, 182
  전화 : 3277-7823
  주요메뉴 :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 서울관
  주소 : R. DA GLORIA, 118/122, LIBERDADE
  전화 : 3107-7713
  주요메뉴 : 회, 해물탕, 불고기,탕수육 등

- 한양관
  주소 : R. LUBAVITCH, 12, S/12, BOM RETIRO
  전화 : 223-2631
  주요메뉴 : 순대국, 순대, 생선구이, 찌개류 등

ㅇ 브라질 식당

- Fogo de Chao Churrascaria
  주소 : Av. Moreira Guimaraes
  Tel : 5056-1021
  주요메뉴 :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Vento Haragano Churrascaria
  주소 : Av.Reboucas 1001
  Tel : 3083-4265
  주요메뉴 :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 AVENIDA ANGELICA GRILL
  주소 : AV. ANGELICA, 430
  전화 : 862-5194
  주요메뉴 : 슈하스꼬(브라질식 바비큐) 등

ㅇ 일식당

- 고야마(Koyama)
  주소 : R. 13 de Maio, 1050, Bela Vista
  전화 : 3283-1833
  주요메뉴 : 초밥/사시미, 우동

- 산또리(Suntory)
  주소 : AL. CAMPINAS, 600
  전화 : 283-2455
  주요메뉴 : 스끼야끼 등

- 야요이(YAYOI)
  주소 : R. SAO CARLOS DO PINHAL, 451
  전화 : 285-1226
  주요메뉴 : 초밥/사시미 등

ㅇ 중국식당

- GOLDEN FISH
  주소 : AV. DIVINO SALVADOR, 61
  전화 : 5561-2536
  주요메뉴 : 연어요리 등

- China Lake
  주소 : R. Mal. deodoro, 525
  전화 :
  주요메뉴 : 연어요리 등

- Guinza
  주소 : AV. Galvao Bueno, 700
  전화 : 3277-7204
  주요메뉴 : 북경오리요리 및 중국음식 전반

ㅇ 이탤리언 식당

- Massimo
  주소 : Al. Santos 1,826
  전화 : 3284-0311
  주요메뉴 : 스파게티, 리조또 등

- Lellis
  주소 : R. Bela Cintra 1,849
  전화 : 3064-2727
  주요메뉴 : 이탈리안 음식 전반

29. 교통/통신/교통,통신

ㅇ 교통

- 항공기

대부분의 세계 주요도시와 브라질간 운행노선이 있어 항공편은 편리한 편이며 대부분 상파울루의 과룰류스(Guarulhos) 공항이나 리오데자네이로의 갈레아웅(Galeao) 국제 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국제공항 공항세는 104헤알(약 43불)이다. 국내항공도 잘 발달되어 있으나 독과점인 관계로 요금이 비싼 편이다.

- 택시

택시는 우리나라의 콜택시에 해당하는 '라디오'택시와 일반택시가 있으며, 요금은 일반택시에 비하여 콜택시가 약 2배 가량 비싼 편이다. 팁은 없지만,거스름돈이 잔돈일 경우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이다.

도심여행 중에는 택시 이용이 안전하며,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목적지를 적어 두었다가 운전기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브라질이 초행인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브라질에서 택시제도가 잘 발달 되어 있으며, 주소만 운전사에게 말하면 대부분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 단, 운전사의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 줄 필요가 있다.

'하이퍼 인플레'시절에는 택시 요금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수시 인상하였기 때문에 미터기를 지수화하고, 지수에 맞는 요금 표를 택시에 비치하고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요금 표를 수시로 교체하였다.

인플레시대 이후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택시미터기에 직접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 버스

시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오랜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 지하철과 철도

지하철은 상파울루시에는 자바꽈라와 산타나간의 17㎞ 노선(18역)으로서, 동서로 달리는 역 등 4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리오에는 1호선과 2호선이 있다. 철도편은 완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같은 지점을 가는데 에도 지방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불편한 편이다.

ㅇ 통신

1998 년 통신공사 민영화 이후 통신사정이 크게 개선되어 요금이 크게 인하되었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무선전화의 경우 1997 년 460 만대에 불과했으나 2002 년에는 3,100 만대로 폭증했고 2005 년에는 5,800 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30. 유용한 연락처

ㅇ 공관 및 무역관

- 대사관

. 주소 : Av.das Nacoes Lote 14, Brasilia DF, Brazil, Cep: 70436-900

. 전화 : 55-61-3321-2500
. 팩스 : 55-61-3321-2508

- 상파울루 총영사관
. 주소 : Av.Paulista,37,9 andar, Sao Paulo, SP, Brasil
. 전화 : 55-11-3141-1278
. 팩스 : 55-11-3141-1279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주소 : Av.Paulista, 1842, Conj.97, Cetenco Plaza Torre Norte, C.Cesar, Sao Paulo, SP, Brasil
. 전화 : 55-11-3289-4200
. 팩스 : 55-11-3289-4684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파울루 사무소
. 주소 : Alameda Santos,1827 Conj.82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sil
. Tel : 55-11-3284-5286
. Fax : 55-11-3142-9096

ㅇ 병 원

- 나사렛 종합병원
. 주소 : R.Newton Prado,88
. 전화 : 3331-2774/3337-6703

- 봉헤찌로 종합병원 (원장 김 재수)
. 주소 : R. BANDEIRANTES, 492, BOM RETIRO
. 전화 : 3311-8544

- 녹십자 종합병원 (원장 이 영만)
. 주소 : R. BOM PASTOR, 905
. 전화 : 6915-7444

- 김명규 안과 (원장 김 명규)
. 주소 : AV. ACLIMACAO, 39
. 전화 : 3209-1418/5440

- 이병훈 치과 (원장 이 병훈)
. 주소 : R. DOS ITALIANOS, 327, S12
. 전화 : 221-8070

- 조 소아과 (원장 조 원극)
. 주소 : AV. TURMALINA, 176
. 전화 : 9687-4234,221-7966,3331-2774

- 김현경 산부인과 (원장 김현경)
. 주소 : R. JULIO CONCEICAO, 285, 1 AND.
. 전화 : 9708-6565,3331-2774,221-7966

ㅇ 공항 및 항공사

- 과룰류스(꿈비까) 국제공항 : 6445-2945
- 꽁고냐스 국내공항 : 5090-9195
- VARIG(바리기) 브라질항공사 : 5091-7000
- VASP(바스삐) 브라질항공사 : 5532-3000
- TAM(땀) 브라질항공사 : 3123-1000
- AMERICAN AIRLINE 항 공 사 : 3214-4000

ㅇ 긴급 연락처

- 화재 : 193
- 경찰 : 190
- 긴급구조 : 192
- 교통사고 : 194
- 휴일 약국문의 : 136

ㅇ 교포언론사

- 동아일보
. 전화 : 3272-0711
. 팩스 : 3272-8986

- 조선일보
. 전화 : 5579-9388
. 팩스 : 5575-4083

- 중앙일보
. 전화 : 3326-2522

. 팩스 : 3313-0527

- 한국일보
. 전화 : 3209-9711
. 팩스 : 3341-3076

- 한국방송
. 전화 : 5571-8197
. 팩스 : 5575-3042

31. 여행시 유의사항

ㅇ 체류시 유의사항

상파울루와 리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하며 권총강도 및 납치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인중 총기를 소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지인과 시비 및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 시 현금 등을 과도하게 지참하지 말고 고급목걸이, 시계 등 고가품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그룹행동이 보다 안전하다.

ㅇ 강도를 만났을 때 행동요령

-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확인시킨 뒤 주머니를 가리키며 돈을 꺼내겠다는 제스처를 보일 것
- 주머니에서 지갑을 천천히 꺼내면서 지갑을 완전히 꺼내기 전에 지갑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킨 뒤 꺼내어 돈을 건네줌
-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항하는 것은 위험함(참고로 강도에 대비하여 100-200헤알 정도가 든 별도의 지갑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임)

ㅇ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 가능하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부를 수도 있으나, 가급적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안전한 편이다.

ㅇ 현지 팁 관행

택시 이용 시에는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으며 공항에서 택시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가방 1개당 2헤알 정도의 팁을 지불하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침실 청소 시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현지화 2헤알 정도 놓아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음식값의 경우 10% 정도를 팁으로 주며 음식요금 청구 시

서비스료로 10%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별도로 팁을 줄 필요는 없다.

ㅇ 식수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미네랄워터를 구입하여야 한다. 식당에서도 물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 주문해야 한다.

ㅇ 이발소 이용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현지교포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봉헤찌로(Bom Retiro)나 브라스(Bras) 등의 지역에 있으며, 요금은 25 30헤알 정도이다.

ㅇ 구두닦이

거리에는 없으며 건물 내 공공장소 등에 있으며, 요금은 현지화 5헤알에서 20헤알까지 다양하다.

ㅇ 응급구호

'193'을 DIAL하면 앰뷸런스가 시립병원으로 이송하며, 이송비용은 무료이다. 민간병원의 응급실 이용 시에는 고가의 진료비,입원비 등 관련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ㅇ 현지인 식사대접

한식,일식 음식점도 무난하나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ㅇ 현지인 가정방문 시 선물준비

현지인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 인삼차나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담긴 민예품 등 한국적인 선물이면 바람직하나, 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꽃이 무난하다.

ㅇ 운전면허

브라질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교통국으로부터 정식 절차를 밟아 현지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 면허증 발급절차는 우선 국제면허증이나 한국면허증을 공증받아 교통국에 제출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32. 관광명소

ㅇ 상파울루 (Sao Paulo)

브라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국가이나 국토가 광대하여 관광자원이 리오 데 자네이로, 이구아수, 오루 뿌레뚜, 살바도르, 마나우스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 상공업도시로서 역사가 깊은 유적지는 많지 않다.

- SE 성당 (Catedral SE)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서 시내 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대략 8천명 정도이다. 이 성당은 1914년에 준공하여 1954년도에 완공되었으며, 공사기간 중에 사망한 인부들의 시신과 역대 신부님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성당의 둘레는 112미터, 폭은 44미터, 높이는 66미터(탑 꼭대기 까지)이다. 상파울루 발원지인 SE성당은 1554년 1월25일 바로 이곳에서 조제 안시에따(Jose Anchieta)신부와 마누엘 다 노부레가(Manuel da Noburega)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현재 까지도 여기가 번지수로는 1번지가 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모양으로 상파울루가 발전되어 갔다.

- 이피랑가(Ipiranga) 독립기념 박물관

브라질은 1822년 9월7일 D. Pedro 1세에 의해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 독립은 어떤 유혈 혁명의 독립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포르투갈)로부터 내정간섭의 분리가 바로 이 나라의 독립이었다. 이 독립기념 박물관내에는 브라질의 독립에 기여했던 인물들과 식민지 역사 박물관, 브라질의 발전 상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 동양인의 거리(Liberdade)

1974년 상파울루 시 정부에서 이 거리를 동양인의 거리라고 명명하였다. 사실상 이 거리를 꼭 집어서 말하자면 일본인들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문화행사인 꽃 축제인 "하나마쯔리"를 이 거리(Rua Galvao Bueno)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실상 이 거리를 가보면 동양인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가게들, 간판들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대표적으로 이 세 나라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가장 손쉽게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이비라뿌에라 공원 (Parque Ibirapuera)

상파울루가 시(市)로 지정된 지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4년 이 공원을 설립하였다. 보통 주중에는 자동차편을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나 주말에는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브라질 발견 50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벌여져, 지금도 5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15만평 정도이며, 주말에는 해변가를 찾지 못한 상파울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상파울루 시민혁명 기념박물관

1932년에 있었던 브라질 근대사의 최고의 사건인 시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이다. 시민혁명은 우리나라의 광주민중혁명과 견주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브라질의 역사상 중요한 일이다. 이 시민혁명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이비라뿌에라 공원 맞은편에 우뚝 솟아 있다. 이 시민혁명 기념탑 밑에는 실제로 554명의 시신이 묻혀져 있다. 탑 밑으로 들어가면 바깥의 뜨거운 기운과 대조적으로 서늘한 기운을 맛볼 수 있으며 벽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아주 인상적이다.

- 독사(파충류) 연구소 (Butanta)

1901년 비딸 브라질(Vital Brasil) 박사에 의해서 이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브라질은 뱀 뿐만 아니라 독충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 연구소를 설립 하였다.

ㅇ 이구아수 (Iguacu)

- 이과수 폭포 (Foz de Iguacu)

상파울루시에서 1,348Km지점에 있는 폭포로, 버스로 약 16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 거리이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국간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A)주 포스 두 이구아수(FOZ DO IGUACU)시에 위치한 명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폭포이다.

- 이따이뿌 댐 (Itaipu)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이루는 빠라나(PARANA) 강 상류에 위치하였고, 강 하류는 아르헨티나 내륙을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이어진다. 이따이뿌댐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양국간 협정에 의거 1976년에 착공하여 1991년 완공되었는데,총 공사기간은 15년이었다.

ㅇ 리오 데 자네이로 (Rio de Janeiro)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는 포루투갈어로 "1월의 강"이란 뜻의 도시로,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다. 주요 관광지로는 다음과 같다

- 예수상 (Corcovado)

리오 시내 해발 720미터 산정상에 세어져 있는 예수상. 높이는 38미터, 무게 1,100톤으로서 리오 시민 모금에 의하여 1931년 이태리 천문학자 설계로 완성 되었다. 동 예수상은 과나바라(Guanabara)만을 향하여 팔을 펴고 있으며, 이곳에서 리오 시내를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에 의하여 예수가 재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승용차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으며, 전철 이용도 가능하다. 전철운행시간 : 08:30 - 20:00 (30분 간격으로 운행)

- 빵 지 아수까르(Pao de Acucar, 설탕빵山)

원래 인디오의 발음을 흉내내어 부르게 된 산으로, 빵을 세워놓은 듯한 2개의 바위산(해발 396미터)으로서 과나바라(Guanabara)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 관광지는 식민지 이전에는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었다. 1865년 포르투갈 식민지 이후에는 군부대 기지로 사용, 관측소로도 이용되었으나 1909년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 1912년 부터 운행(케이블카 길이 1.4킬로미터)하고 있고, 리오 해안을 가로지르는 13킬로미터의 니떼로이 (Niteroi)다리와 시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석상과는 맞은 편에 위치하였다.

관광시간 : 오전 08:00 - 22:00 (케이블카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33. 유용한 현지어 표현

ㅇ 유용한 표현

- Obrigado(“감사합니다”의 의미로 남성인 경우 “오브라가두”여성인 경우 “오브리가다

Obragada ” 로 얘기해야 함)
- De nada. (지 나다 = [감사표시에 대해] 천만에요)
- Desculpe. (디스꿀삐 = 미안합니다)
- Tudo bem. (뚜두 벵 = [사과에 대해] 괜찮습니다)
- Bom dia. (봉 지아 = [오전중] 안녕하세요?)
  Boa tarde. (보아 따르지 = [오후] 안녕하세요?)
  Boa noite. (보아 노이찌 = [밤] 안녕하세요?)
- Muito prazer. (무이뚜 쁘라제르 =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Parabens. (빠라벵스 = 축하합니다.)
- Pois nao? (뽀이즈 너웅 = 무슨 용건이신가요? 도와드릴까요?)

* 종업원이 손님에게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됨

- Qual e o seu nome? (꽈우 에 우 세우 노미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Meu nome e hong kil dong... (메우 노미 에 홍길동 = 제 이름은 홍길동 입니다)
- Eu gostaria de fazer reserva de hotel. (에우 고스따리아 지화제르 헤제르 바지 오떼우 = 호텔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 Saude! (싸우지! = 건배!) ※ 원래 "건강"이란 뜻임
- Posso falar com uma pessoa que fale ingles?
  (뽀쏘 팔라르 꽁 우마 뻬쏘아 끼 팔리 잉글레스 = 영어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 Para este endereco, por favor?
  (빠라 에스찌 엔데레소, 뽀르 파보르 = 이 주소로 가주실까요?)

* 방문처의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는 경우

- Eu gostaria de falar com o Sr. ---.
  (에우 고스따리아 지 팔라르 꽁 우 세뇨르 --- = ---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 Quero comprar este aqui, por favor.
  (께로 꼼쁘라르 에스찌 아끼, 뽀르 파보르 = 여기에 있는 이것을 사고 싶습니다).
- Onde fica o elevador? (온지 피까 우 엘레바도르 =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 Tenho dor de cabeca. (떼뇨 도르 지 까베싸 = 두통이 있습니다.)
  = Estou com dor de cabeca. (에스또우 꽁 도르 지 까베싸)
- Aqui tem algum remedio para gripe?
  (아끼 뗑 알궁 헤메지오 빠라 그리삐 = 여기 감기약 있습니까?)
- Pode me dar sinal de fax, por favor?
  (뽀지 미 다르 씨나우 지 팍스, 뽀르 파보르? = 팩스신호로 바꿔주시겠습니까?)
- Quanto custa? (꽌또 꾸스따 = 가격이 얼마입니까?)
- Posso pagar com cartao de credito? (뽀쏘 빠가르 꽁 까르떠웅 지 끄레지또 =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도 됩니까?)

ㅇ 유용한 단어

- 호텔관련
. reserva : 예약 (헤제르바)
. servico de quarto : 룸서비스 (쎄르비쏘 지 꽈르또)
. gerente : 매니저 (제렌찌)

. frigobar : 객실용 냉장고 (프리고바)

* 음료, 과자 등이 있으며 먹거나 마시면 과금이 됨
. hotel : 호텔 (오떼우)

- 식당

. cardapio : 메뉴, 메뉴판 (까르다삐오)
. pao : 빵 (뻐웅, 빠웅)
. queijo : 치즈 (께이죠)
. manteiga : 버터 (만떼이가)
. cerveja : 맥주 (쎄르베쟈)
. refrigerante : 음료수 (콜라, 사이다 등) (헤프리제란찌)
. suco : 쥬스 (쑤꼬)
. garcom : 웨이터 (가르쏭)
. cafe : 커피 (까페) = cafezinho (까페지뇨)
. bebida : 마실 것 (베비다)
. carne : 고기, 육류 (까르니)
. peixe : 생선 (뻬이쉬)
. frango : 닭고기 (프랑고)
. arroz : 쌀 (아호스)
. milho : 옥수수 (밀료)
. batata : 감자 (바따따)
. hamburger : 햄버거 (암부르게르)
. sanduiche : 샌드위치, 햄버거세트의 버거빵 (싼드위시)
. molho : 소스 (몰료)

- 쇼핑

. cartao de credito : 크레딧카드 (까르떠웅 지 끄레지또)
. cheque : 체크, 수표 (셰끼)
. a vista : 현금으로 (아 비스따)
. promocao : 바겐세일 (쁘로모써웅)
. liquidacao : 대처분 (리뀌다써웅)
. desconto : 디스카운트 (데스꼰또)
. luvas : 장갑 (루바스)
. meias : 양말 (메이야스)
. caixa : 카운터 (까이샤)
. recibo : 영수증 (헤씨보)

- 약국

. drogaria : 약국 (드로가리아) = farmacia : 약국 (파르마씨아)
. dor de cabeca : 두통 (도르 지 까베싸)
. dor de garganta : 목의 통증 (도르 지 가르간따)
. dor de estomago : 복통 (도르 지 에스또마고)

. remedio : 약 (헤메지오)
. gripe : 감기 (그리삐)
. tosse : 기침 (또씨)
. receita : 처방 (헤쎄이따)
. medico : 의사 (메지꼬)
. medicina : 의학 (메지씨나)
. medicamento : 의약품 (메지까멘또)

34. 국토

ㅇ 위치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베네수엘라, 기아나, 수리남 등과 접해 있고 동으로는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 등과 접해 있다. 또한 남으로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접해 있다. 남미지역에서 브라질과 국토를 접하지 않은 나라는 칠레와 에콰도르 등 2개국이다.

ㅇ 면적

브라질의 국토면적은 851만2천 평방미터로 세계 5위이다. 세계 최대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전국토의 68%인 580만㎢가 삼림으로 덮여 있으며, 삼림면적에서는 세계적으로 구 소련 다음으로 2위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삼림의 대부분은 경목인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부지역에 연목인 침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ㅇ 국토구분

브라질은 편의상 국토를 5개로 구분하는데 북부지역, 북동부지역, 중서부지역, 남동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나뉜다. 상업 지역인 상파울루와 리오 데 자네이로는 남동부지역에 포함되며, 브라질의 가장 큰 주인 아마조나스 주는 북부지역에 포함된다.

35. 국민

ㅇ 인 구

브라질의 총인구는 1억 8천 4백 만 명으로 세계 5위이다. 주요 대도시는 상파울루, 리오 데 자네이로, 살바도르, 벨로오리존찌 등 남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브라질은 이민으로 구성된 국가로 주요 민족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아랍(시리아, 레바논 등), 이스라엘, 포루투갈, 일본, 중국, 한국 등이다.

ㅇ 종 족

브라질에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으며, 백인이 5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갈색인(백인과 흑인간 혼혈)이 39.9%, 흑인이 5.4%,황색인 0.5%, 인디오가 0.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ㅇ 언 어

공용어와 상용어가 모두 포르투갈어이며 어휘나 발음, 문법 등에서 포르투갈 본토의 포르투갈어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브라질 내에서도 지방에 따라 발음 등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ㅇ 종 교

브라질은 카톨릭 85%, 개신교 10% 등 기독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기타 유대교, 이슬람교, 토속신앙 등이 있다.

36. 역사

브라질은 1500년 4월 22일 포루투갈의 페드로 알바레스 까브랄(Pedro Alvares Cabral)에 의해 발견된 후 1807년 까지 307년간 식민지시대를 경험했고 1964년부터 1985년까지 군정시대를 경험한 나라이다.

브라질은 염료를 채취할 수 있는 브라질이라는 나무에서 유래된 것이다. 다음은 브라질의 약사를 정리한 것이다.

시기	주요 약사
1500.4.22	포르투갈의 페드로 알바레스 까브랄에 의해 발견된 후 식민지화됨.
1807	나폴레옹의 스페인 점령에 위험을 느낀 포르투갈국왕 DOM JOAO 6세가 브라질로 피신, 리오 데 자네이로를 수도로 하는 포르투갈 왕국을 브라질에 수립.
1820	동 주앙 6세는 포르투갈로 귀환하고 황태자인 DOM PEDRO 2세가 브라질 통치
1889	군부세력이 왕권을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켜 동 베드로 2세는 연방공화국 선포
1961	JOAO GOULATT 정권의 좌경화 정책추구 및 경제불황으로 사회불안이 조성되자 1964.3.31 군사 쿠테타가 발생 군사정권 시작
1985. 3.15	JOSE SARNEY 민간 정부 탄생
1990. 3.15	FERNANDO COLLOR DE MELLO 직선대통령 출범
1992. 9	COLLOR 대통령이 독직사건으로 탄핵 소추 됨에 따라 ITAMAR FRANCO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1995. 1.1	FERNANDO H. CARDOZO 대통령 당선 및 취임
1998.10.4	FERNANDO H. CARDOZO 대통령 재선 성공
2003. 1.1	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 당선 및 취임

37. 국가조직

ㅇ 행정부

브라질은 연방공화국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ㅇ 사법부

사법제도의 골격은 3심 제도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관할 법원이 연방법원과 주정부 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 법원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나누어 진다. 연방법원의 관할 업무는 마약, 밀수, 출입국관계 및 기타 연방사무 업무이며, 주정부법원 관할업무는 연방법원 소관사항 외의 사무이다.

ㅇ 입법부

브라질은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은 81석으로 26개 주 및 브라질리아 연방자치구에서 각 3명씩 선출되고 임기는 8년이다. 상원의원은 4년마다 정원의 3분의 2와 3분의 1이 교체된다. 하원은 513석으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한편 26개 주 및 브라질리아(BRASILIA) 연방자치구는 주 의회 및 주정부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38. 정치제도

ㅇ 선거제도

대통령, 상원.하원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은 직접선거에 의거 선출하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대통령은 매 4년마다 선출하며 과반수 미달 시 상위 2명의 후보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의원선거의 경우, 상원의원은 의원총수의 3분의 1과 3분의 2를 매 4년마다 교대로 선출하며 의원들의 임기는 8년이다. 하원의원은 매 4년마다 선출한다.

또한 주지사, 주 의원, 시장, 시의원이 모두 임기가 4년이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권은 16세 이상 남녀에게 주어지고 의무선거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ㅇ 정당제도 및 주요 정당현황

브라질의 의회제도는 상하 양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원은 513명, 상원은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정당법은 101명의 서명만 있으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거고등법원(TSE)에 등록된 정당은 30개를 상회한다.

- 노동자당(PT)

노동자당은 현 집권당으로 1980년 상파울루 위성도시였던 ABC지역의 철강, 자동차 노조가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다. PT당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층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민주운동당(PMDB)

민주운동당은 과거 군부시절 야당이었던 MDB를 물려받아 1981년에 창설되었다. 의식 있는 야권인사들이 모두 PMDB당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 이어서 군부가 물러나면서 실시된 1986년 주지사선거에서 절대 여당으로 부상한바 있다.

- 민주사회당(PSDB)

과거 야당 인사 중 사회주의적인 성향과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당이다. PSDB당은 1988년 민주운동당(PMDB)에서 분리하여 생긴 정당이다.

- 자유전선당(PFL)

자유전선당은 전통적으로 여당성향을 갖는 정당이다. PFL당은 1985년 민주회복기에 Tancredo Neves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PDS(사회민주당)에 반대적인 입장을 갖는 정치인들에 의해 탄생되었다.

- 민주노동당(PDT)

민주노동당은 레오넬 브리졸라가 지난 1980년 5월 창설했는데 전 제뚤리오 바르가스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승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브라질진보당(PPB)

브라질진보당은 과거 진보개혁당(PPR)과 대중당(PP)이 통합하여 생긴 정당이다.

ㅇ 정당별 의석 현황

정당명	하원	상원
노동자당(PT)	91	14
자유전선당(PFL)	84	19
민주운동당(PMDB)	74	19
브라질민주사회당(PSDB)	71	11
브라질진보당(PPB)	49	1
자유당(PL)	26	3
브라질노동당(PTB)	26	3
브라질사회당(PSB)	22	3
노동민주당 (PDT)	21	5
기타 군소정당	49	3
계	513	81

39. 정치사회동향

ㅇ 노동당 집권

2002년 10월 27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당(PT)의 루이스 이나이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후보가 39대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브라질 최초의 좌파정부가 탄생하였다.

과거 3차에 걸친 대선에서 패배한바 있는 룰라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PSDB)의 조제 세하(Jose Serra) 후보를 61.4%대 38.6%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였다.

ㅇ 최근 정치사회동향

룰라 정부는 2003.1.1일 취임 직후부터 긴축재정정책과 고 이자율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제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계로부터 신뢰를 얻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대선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보장개혁과 세제개혁 등 개혁정책을 취임 초부터 적극 추진함으로써 개혁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한 긴축재정정책 및 이자율 인상조치로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자 2003년 하반기부터 콜금리 인하 및 자동차 공산품세 인하조치 등 경기부양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관협력프로그램(PPP)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2005년 6월부터 룰라 대통령이 소속된 노동자당(PT)이 연루된 비리가 속출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실업률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도 룰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룰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빈부격차 해소, 개혁정책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 10월말 치러진 상파울루 시장 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PSDB)의 조제 세하(Jse Serra)후보가 집권 노동당(PT)의 마르따 수뿔리시(Marta Suplcy) 시장을 누르고 당선됨에 따라 2006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의 재선행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0. 국가원수

ㅇ 직위 : 대통령
ㅇ 성명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s Inacio Lula da Silva)
ㅇ 임기 : 4년

ㅇ 약력
- 생년월일 : 1945.10.27 (뻬르남부꾸주 Garanhuns시 출생)
- 학력
. 초등학교 5학년 중퇴

. 공업기술원 (Senai) 금속선반공과정 수료
- 가족사항 : 부인(Marisa Leticia da Silva)과 자녀 5명

ㅇ 주요경력
- 1975 : 금속노조위원장에 당선
- 1978 : 금속노조위원장에 재선
- 1980 : 노동자당(PT) 창당
- 1986 : 연방 하원의원 당선
- 1989 : 대선출마 패배
- 1994 : 대선출마 패배
- 1998 : 대선출마 패배
- 2002 : 대선출마 당선

41. 주요인사

<주요 정부각료 현황 : 2005.9.13일 현재>

ㅇ 부통령 (Vice-presidente da Republica)
- 성명 : Jose Alencar
- 생년월일 : 1931.10.17

ㅇ 재무부장관(Ministerio da Fazenda)
- 성명 : Antonio Palocci Filho
- 소속정당 : PT - SP
- 생년월일 : 1960.10.4

ㅇ 개발상공부장관(Ministerio dd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 성명 : Luiz Fernando Furlan
- 소속정당 : 무소속
- 생년월일 : 1946.4.29

ㅇ 기획부장관(Ministerio do Planejamento, Orcamento e Gestao)
- 성명 : Paulo Bernardo
- 소속정당 : PT-PR
- 생년월일: 1952.3.10

ㅇ 외무부장관(Ministerio das Rel. Exteriores)
- 성명 : Celso Amorim
- 소속정당 : 무소속
- 생년월일 : 1942.6.3

ㅇ 교통부장관(Ministerio dos Transportes)
- 성명 : Anderson Adauto
- 소속정당 : PL-MG
- 생년월일 : 45세

ㅇ 농축산부장관 (Ministerio da Agricultura, Pecuaria e Abastecimento)
- 성명 : Joao Roberto Rodrigues

- 소속정당 : 무소속
- 생년월일 : 1942.8.12

ㅇ 교육부장관 (Ministerio da Educacao)
- 성명 : Cristovam Buarque
- 소속정당 : PT

ㅇ 노동부장관 (Ministerio do Trabalho e Emprego)
- 성명 : Jaques Wagner
- 소속정당 : PT
- 생년월일 : 1951. 4월생

ㅇ 보건부장관 (Ministerio da Saude)
- 성명 : Humberto Costa
- 소속정당 : PT-PE
- 생년월일 : 1957.7.7

ㅇ 통신부장관 (Ministerio das Comunicacoes)
- 성명 : Miro Teixeira
- 소속정당 : PMDB-CE
- 생년월일 : 1945.5.27

ㅇ 사회복지부장관 (Ministerio da Previdencia Social)
- 성명 : Romero Juca
- 소속정당 : PMDB-RR
- 생년월일 : 1954.11.30

ㅇ 과학기술부장관 (Ministerio da Ciencia e Tecnologia)
- 성명 : Roberto Atila Amaral Vieira
- 소속정당 : PSB-PE
- 생년월일 : 1940. 12월생

ㅇ 정무장관 (Casa Civil da Presidencia da Republica)
- 성명 : Dilma Rousseff
- 소속정당 : PT-SP
- 생년월일 : 1946.3.16

ㅇ 중앙은행총재 (Banco Central do Brasil)
- 성명 : Henrique de Campos Meirelles
- 소속정당 : PSDB-GO
- 생년월일 : 1945.8.31

ㅇ 문화부 (Ministerio da Cultura)
- 성명 : Gilberto Passos Gil
- 소속정당 : PV 녹색당
- 생년월일 : 1942.6.26

42. 행정구역

ㅇ 행정구역

브라질은 26개 주와 1개 특별연방구(브라질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은 지방 자치 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미국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와 시 모두 독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ㅇ 5개 지역

브라질은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별 해당 주들은 다음과 같다.

- 동남부지역

상파울루(SAO PAULO),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이스삐리또 싼또(ESPIRITO SANTO) 주

- 남부지역

빠라나(PARANA), 싼따 까따리나(SANTA CATARINA), 히오그란지도술(RIO GRANDE DO SUL)주

- 북부지역

혼도니아(RONDONIA), 아끄레(ACRE), 아마조나스(AMAZONAS), 호라이마(RORAIMA), 빠라(PARA), 아마빠(AMAPA), 또깐찐스(TOCANTINS)주

- 동북부지역

마라냐웅(MARANHAO), 삐아우이(PIAUI), 쎄아라(CEARA), 히오그란지도노르찌(RIO GRANDE DO NORTE), 뻬르남부꼬(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쎄르지삐(SERGIPE), 빠라이바(PARAIBA), 바이아(BAHIA)주

- 중서부지역

고이아스(GOIAS), 마또그로소(MATO GROSSO), 마또그로소도술(MATOGROSSO DO SUL), 브라질리아 연방자치구(DISTRITO FEDERAL)

43. 대외관계

ㅇ 외교노선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국가로서 미국, EU,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아시아 등 주요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한 실리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와도 통상관계를 유지하려는 소위 정경분리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ㅇ 지역주의 참여 정도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주축 국으로써 메르코수르 공고화에 1차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미시장통합 추진, 미주자유무역지대 및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지대 창설협상에도 나서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주축 국인 동시에 남미공동시장 공고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남미공동시장은 1991년 3월 아순시온 조약으로 설립되었으며 '95.1.1부로 관세동맹으로 공식 출범한 중남미 최대 경제 블럭이다. 회원국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며, 준 회원국은 칠레,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다.

ㅇ 국제기구 가입현황

브라질이 가입한 국제기구는 UNCTAD, OAS, LAIA, IMF, IBRD, IDA, IDB, OECD, GATT, IFC 등이다.

44. 국가경쟁력

ㅇ 2004년 IMD 국제경쟁력 브라질 순위
- 종합 순위 : 53위 (2003년 52위에서 1단계 하락)

ㅇ 요소별 연도별 브라질 경쟁력 순위

요소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Economic Performance	38	42	35	46	53
Government Efficiency	46	46	40	54	57
Business Efficiency	24	23	25	32	33
Infrastructure	38	41	41	51	54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45. 도량형

ㅇ 도량형

거리와 면적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량에는 리터(LITER)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무게에는 그램과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브라질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숫자의 천 단위 마다 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점에는 점 대신 쉼표(,)를 사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한국에서 1,000은 브라질에서 1.000로 표기된다.

ㅇ 전기규격

전기는 주로110볼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220볼트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전력 콘센트가 110볼트인지 220볼트인지 주의해야 하며, 플러그의 차이에 따라 콘센트 모양이 차이가 있다. 한국과 브라질의 콘센트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상가 등에서 일명 “돼지코”콘센트를 구입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

46. 관공서 관행

ㅇ 관공서 근무시간

통상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이다.

ㅇ 관공서 일 처리

브라질 관공서 일처리는 제때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통관 등의 경우, 결재라인이 대단히 복잡하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결재자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 일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개인적으로 바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동사무소의 개념은 없으나 시내 여러 곳에 등기소(CARTORIO)가 있어서 개인의 신상처리와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47. 국제공항 및 항구

ㅇ 국제공항

브라질의 상공업 중심지인 상파울루 지역에는 과룰류스(GUARULHOS) 국제공항이 있으며, 일명 꿈비까(CUMBICA)공항이라고도 한다. 과룰류스 공항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공항이 과룰류스 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 이어 2번째 대도시인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에는 갈레어웅(GALEAO) 국제공항이 있으며, 이외에도 깜삐나스(CAMPINAS)시에 비라꼬뽀스(VIRACOPOS) 국제공항이 있다.

ㅇ 국제항구

브라질의 최대항구는 싼또스(SANTOS)이며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여기를 통해 들어 오고 있으나 물동량에 비해 하역처리 능력이 상당수 부족한 편이다. 중부지역권인 빅또리아(VICTORIA)항은 유통세 등 세제상의 혜택으로 자동차 등의 하역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수입물품은 싼또스 항구에서 상파울루의 보세창고로 옮겨져 상파울루시에서 통관되는 경우도 있다.

벨렝(BELEM)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를 연결하는 항구이며, 목재 등 자원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48. 매스미디어

ㅇ TV

텔레비전 방송방식은 PAL-M으로 소규모 영세 방송국을 포함하여 총 257개 방송사가 있다. 주요 방송국으로는 글로보(TV GLOBO), 꿀뚜라(TV CULTURA), 반데이란찌스(TV BANDEIRANTES), SBT, 헤꼬르지(TV RECORD), 가제따(TV GAZETA) 등이 있다. 이중 CULTURA 방송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SBT, GAZETA, BANDEIRANTES 등은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고 있다.

정규 방송국외에도 유선 CABLE TV가 있는데, NET(GLOBO방송), TVA 등이 있으며, 유선방송 채널에는 각국의 유명한 위성방송과 브라질 현지방송, 미국의 각종 오락 및 문화관련 채널이 포함되어 있다.

ㅇ 라디오

라디오 방송사는 총 2,930개사가 있으며, 주요방송국은 RADIO AMERICA, RADIO BANDEIRANTES, RADIO CAPITAL, RADIO CIDADE, RADIO GLOBO 등이 있으며, RADIO CULTURA는 TV와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내용과 CLASSIC 음악 등으로 유명하며 RADIO CBM 등은 24시간 뉴스전문 라디오 방송국으로 유명하다.

ㅇ 신문사

현지의 유력신문으로는 ESTADO DE SAO PAULO, FOLHA DE SAO PAULO 등이 있으며 경제전문 일간지로는 GAZETA MERCANTIL, Valor Economico 등이 있다.

ㅇ 잡지사

현지 유명 시사전문 잡지사로는 VEJA, ISTO E, EXAME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전문 잡지와 오락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49. 주한 주재국기관

ㅇ 주한 브라질대사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41 인 갤러리빌딩 4, 5층
- 전 화 : 02-738-4970/720-4428
- 팩 스 : 02-738-4974

50. 물가정보

ㅇ 도시명 : 상파울루(Sao Paulo)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7.65	1인분
	햄버거	2.97	맥도날드 빅맥 1개
	담배	1.20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현지생산)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 임차료	1,276/2,55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 임차료	638/1,276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2,55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26,8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8	1구간
	택시요금	1.48	기본요금
	택시요금	0.12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05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1.8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4.25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12.76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4,210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14,850	초등 1년간, Graded학교 기준
레져.오락	골프장 그린피	55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5.5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85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328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66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425/680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680/715	대졸, 초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2005.9), 환율 : U$1=R$2.35 기준

51. 경제발전사

ㅇ 초기 공업화

MECICI정권(69-74)은 내수진작 및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GEISEL 정권(74-79)은 국내소비 및 수출용 기초 원료생산 강화를 위한 제2차 국가 개발계획을 추진하여,'78년 이전에 브라질은 이미 철강, 화학제품, 펄프 및 종이, 비료, 비철금속을 비롯한 기초원료를 생산했다.

동 개발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재원조달문제가 발생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국내외 기채 및 조세확충보다는 화폐발행을 통해서 해결했다.

한편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에 대비하지 않은 에너지정책, 외국기술에의 지나친 의존에 따른 경제의 외부충격에의 취약성증가, 정부의 임기응변 식의 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국가경제의 구조적 허약성을 노출했다.

ㅇ 경제 침체기

'79년 말의 제2차 석유파동, 국제금리 인상 및 주요 교역국들의 전반적인 불경기 여파로 70년대 중 지속된 경제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FIGUEIREDO정권('79-'85)은 원유수입대체, 수입대체산업 육성, 농업부문 효율성 증대, 수출상품 다변화 및 국내산업 육성 강화를 주안으로 하는 제3차 국가개발계획을 시행했다.

또한 국제수지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재정 수입 확충에는 실패하였고, 국내저축률도 '78년의 23.2%에서 '82년 18.8%로 크게 저하되었다.

SARNEY 민간정부는 제4차 국가개발계획(`86-`90)실시. 초기에 IMF가 권장한 경제구조 조정정책 목표를 달성키 위해, 정통적인 금융.재정정책을 채택하였으나 STAND BY LOAN협상 결렬 후 변칙적인 금융, 재정정책으로 선회했다.

ㅇ 경제 재건 단계

- COLLOR 정권

전 정권의 유산인 HYPER INFLATION상황은 신 정부로 하여금 충격적인 경제 조치시행을 불가피하게 하여,'90.3.15일 COLLOR대통령의 취임을 기해 "COLLORPLAN"을 발표,시행했다.

우선 방만한 시중유동성을 통제키 위해,18개월간 예금동결 및 인출한도를 최대 $1,000로 제한하고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개인재산세 신설 등을 실시했다.

동 정책 성패의 관건인 세수확충 및 정부지출 삭감을 할 수 있는 재정구조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민영화,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원 등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금동결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를 우려한 경제계 및 국민 일반의 반대로 정책수행의 어려움에 봉착('90.4월 공업생산: 전년비 25%감소)함으로써, 정부는 계획보다 앞당겨 NEW CRUZADO를 CRUZEIRO화로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92년도 브라질 경제는 COLLOR대통령의 독직사건에 따른 탄핵 소추 및 사퇴로 이어진 정치불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높은 세금 및 국내소비수요 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가운데,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자 기록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한 해였다.

- ITAMAR 정권

탄핵소추로 사임한 꼴로르의 후임 ITAMAR대통령은 정치계의 유력인사인 페르난도 엔리끼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외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임명, 다음과 같이 신경제정책(CARDOSO PLAN)을 추진했다.

. 경제성장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
. 균형있는 재정정책 실시
. 물가동결, 경제쇼크 정책 실시 완전 배제
. 인플레율을 상회하는 고 이자율정책 계속실시
. 현 환율정책 계속유지
. 외채협상내용 준수, 조세운용체제 정비 및 이를 통한 탈세 방지
. 긴축재정실시 및 불요불급한 정부 투자지출 중단
. 국영기업의 민영화추진 가속화, 공공요금의 현실화
. 수입개방정책 지속,직업훈련소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리후생정책 강화
. 재정균형을 위한 조세개정안 추진 등

신임 재무부장관은 '90년도 시장개방 이후 국제화된 브라질 경제체제에 맞는 환율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정환율, 관광, 시장환율의 3가지 형태의 환율을 점진적으로 단일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공급원칙에 입각한 자유환율체제로 전환을 목표로 했다.

- CARDOSO 정권

'94년 7월 시행된 신경제정책(REAL PLAN)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CARDOSO 대통령은 물가안정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공헌하였으며, 외환위기로 브라질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1999년 1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 LULA 정권

2003년 1월 집권한 룰라정부는 국제신뢰도 제고 및 물가안정을 통하여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한 후 고용창출과 빈부격차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룰라정부는 수출촉진정책과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수출확대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개혁을 통하여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52. 경제정책

ㅇ 정책기조

브라질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우선 긴축통화정책 및 긴축재정정책 등 안정적 경제정책 추진을 통하여 국제신뢰도를 제고하고 물가안정을 달성한 후 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브라질의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자 구조적인 문제인 공무원연금법 및 세제 개혁 등을 완성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및 건실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ㅇ 수출촉진정책

브라질정부는 과거 내수중심적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에서 탈피, 동아시아를 모방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수출촉진기관들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브라질정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고화 및 메르코수르-안데스공동체 자유무역협정(남미시장통합)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과 쌍무특혜무역협정, 인도.남아공.중국.러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미주자유무역지대와 메르코수르-EU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확대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53. 금융통화제도

ㅇ 금융제도

브라질의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공공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브라질의 금융조직은 국가통화위원회(CMN), 중앙은행(BACEN),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기타 공공.민영 금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브라질에는 현재 약 100여 개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40여 개 은행은 1억불이상의 예치금을 갖고 있다. 또한 15개의 개발은행(development bank)과 5개의 공공 저축.대출은행(public savings and loans institutions), 20개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s),800여 개의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이 있다.

-국가통화위원회 (CMN)

CMN의 주 임무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브라질의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CMN은

화폐통제기구의 권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폐발행을 허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CMN은 외환정책의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통화 예산을 승인하고,신용활동을 규율하고,금융기관의 설립. 활동. 청산을 규율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중앙은행 (BACEN)

중앙은행은 CMN이 결정한 규범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MN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화폐를 발행할 것.
. 통화공급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것.
. 법정한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강제예치금의 양을 결정할 것.
. 금융기관들의 강제지급과 자발적 예치금을 예치할 것.
. 금융기관들과 재할인과 대출거래를 집행할 것.
. 모든 형태의 신용을 통제할 것.
. 외화를 통제할 것.
. 금과 외화의 공식관리를 수행하고 IMF발행 SDRs의 관리역할.
. 금융기관의 조사와 징계 처벌권
. 금융기관의 브라질활동을 허가하고 해외이전.설립을 허가하며 금융기관의 재조직. 통합.합병 등을 허가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허가.통제할 수 있는 권리.
. CMN의 규율에 따라 모든 민영금융기관의 행정조직의 설립과 회계감사 등을 수행할 권리
.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연방 정부채의 매매 활동권

또한, 중앙은행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외국 또는 국제금융기구와 접촉할 수 있는 권한과 연방정부의 기관으로서 국내외 차관거래를 조장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외환시장기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환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 브라질은행 (BANCO DO BRASIL S.A.)

64년 은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브라질은행(BB)은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연방정부의 신용대출정책을 실무 집행하는 정책적 기관으로 활동하지만 사실상 상업은행과 거의 같은 형태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BNDES는 법률 제4595/64호에 의해 설립된 연방금융기관으로 연방정부의 투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과거 한국산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BNDES의 주요임무는 "브라질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즉, 개발금융으로서 연방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특정산업부문의 개발이나 지역개발 등에 저리융자(subsidized-rate financing)의 형태로 금융 지원한다. BNDES의 재원은 주로 융자이자와 기업의 사회복지기여세로 충당된다. BNDES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설립,확장,시설재 구매 등에 장기저리융자를 하는데, 주로 "브라질자본브라질기업"에 대해 융자를 하기 때문에 "외국자본브라질기업"은 BNDES의 금융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BNDES는 개발부 산하기관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출자와 지급보증 등의 금융지원활동도 한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이 설비재를 수입할 경우 경제개발의 맥락에서 수입되는 기계.설비재 등을 담보로 수입금액의 85%까지 대출해 주는 장기수입금융 및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지원 파이낸싱(Finamex)도 해준다.

54. 주요산업동향/광업

브라질의 광물자원은 완전한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낮은 수요수준 및 높은 운반비용으로 인해 개발이 부진한 상태이다. 철광석은 전세계 매장량의 1/3, 보오크사이트는 중남미 국가 중 최고의 매장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망간,석탄, 아연,크롬,금 및 주석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광물생산량의 상당부분(특히 금, 주석, 다이아몬드 등)은 GARIMPEIROS라는 영세 비공식 광산업자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브라질의 광업은 이론적으로는 광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집행기관은 국가광물생산국(DEPARTAMENTO NACIONAL DA PRODUCAO MINERAL ; DNPM)인데, 실제로는 동 광업법 중 비공식 광산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철광석은 순도가 40- 70%에 이르는 고급품으로서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자원으로서 연간 생산량은 약 1억 5천만 메트릭톤, 세계 제일의 철광석 수출국으로 연간 수출량은 약 1억 메트릭톤으로 주로 MINAS GERAIS주의 MBR 및 CVRD광산에서 생산된다. 매장량은 약 320억톤으로 추정(구 소련에 이어 2위)되고 있는데,주요 매장지는 PARA주의 SERRA DO CARAJAS 광산(180억톤)을 비롯 MINAS GERAIS주의 BELO HORIZONTE 지역, PIAUI주, CEARA주, MATO GROSSO DO SUL주 등이다.

브라질은 망간의 세계적인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은 1백만 메트릭톤 정도이며, 매장량은 4억톤 이상이다. 보유 매장량 중 절반은 브라질 자체 개발이 가능하나, 그 나머지는 성분구성 및 지층 구성상 선진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

주요 매장지역은 MINAS GERAIS주, MATO GROSSO주 (CORUMBA), AMAPA주(CARAJAS AND SERRA DO NOVIO) 등이며, AMAPA주 소재 광산에서 연간 80만톤 정도가 생산된다.

55.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농업이 브라질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는 공업발전으로 인해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며 고용의 약 22.5%을 점하고 있다. 밀을 제외하고 브라질은 국내 식량수요를 자급할 수 있는데, 농산물의 중앙집중식 판매망의 결여, 대토지 소유,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이 브라질 농업발달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담배산업은, 잎담배생산은 세계 1위, 궐련 생산량은 세계 4위이며, 커피 생산량은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사탕수수는, 알코올(Alcool)이라는 연료로 개발되어, 일부 자동차가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석유 대체에너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은 전국토의 68%인 580만Km2가 삼림으로 덮여 있으며 크기에서 소련 다음으로 2위 인데, 삼림의 대부분은 경목인 활엽수림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남부지역에 연목인 침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주요 수종으로는 SAO PAULO주의 EUCALYPTUS, 남부 송림지대의 PINE이며,그밖에 ROSE WOOD, IVORY WOOD, MAHOGANY 등이 있는데, 이중 경목은 국내 가구제조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연목은 대부분 수출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o 주요 농산물 생산추이(단위 : 천톤)

	2000	2001	2002	2003
면화	1,307	1,718	1,407	1,429
쌀	11,135	10,195	10,472	10,472
강낭콩	3,056	4,436	3,050	3,310
옥수수	32,321	41,439	35,502	47,809
대두	32,821	37,683	42,020	51,532
밀	1,726	3,261	2,935	5,900
바나나	566	5,959	6,455	6,518
감자	2,607	2,787	2,882	3,070
코코아	197	184	173	171
커피	3,807	1,918	2,444	1,970
사탕수수	326,121	345,941	367,496	389,929
담배	580	565	657	649
오랜지	106,651	16,844	18,932	16,936
만지오까	23,041	22,479	22,990	22,236
토마토	3,005	3,043	3,596	3,641

자료원 : IBGE, (2003.12)

56. 지적재산권

브라질은 지적소유권 보호협약인 '파리'협약과 문학,예술작품 보호협약인 '베른'협약의 가입국이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발족시킨 1967년의 '스톡홀름'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은 문학, 과학,예술 소유권을 포괄하여 민법상 규율을 받는데 반하여 산업재산권은 상법에 의해, 특히 산업재산권법인 법률 제9279호(1996.5.14)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상표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과거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외국업체와 브라질 정부의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다.

지난 '91년 5월 콜로르(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가 종전에 비해 보다 자유화된

"기술사용허가 및 지적재산권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2년5월 브라질의회가 원안의 일부를 수정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의약품에 관한 모든 형태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과 비교할 때 상표권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 특허권의 보호기간 : 15년
- 상표권의 보호기간 : 15년
- 저작권
  . '88년 발효된 Software Law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25년으로 규정
  . 동일한 국산 Software가 존재하는 한 외국산 Software의 도입은 금지

< 브라질의 기술이전 정책 >

1) 기술이전 관련 법규

- ㅇ 특허청(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DUSTRIAL)설립 법률 : 법률 제 5648 호
- ㅇ 산업재산권법 (LPI) : 법률 제 9279 호
- ㅇ INPI규범 제 15 호 :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정형조항에 관한 사항 규정
- ㅇ INPI 규범 제 32 호 : 기술이전 계약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명시
- ㅇ INPI 결정 제 243 호 : TRADEMARK의 등록이 필요한 상품 분류기준 설정
- ㅇ 외국인 투자법 (법률 제 4131 호)
- ㅇ FIERCE 결정 제 19 호와 FIERCE 통첩 제 37 호
- ㅇ 소득세법 : 법령 제 85450 호
- ㅇ 재무부결정 제 436 호 : 기술이전 계약 시 INPI 사전등록에 관한 규정
- ㅇ ANTITRUST법

2) 특허청 (INPI)

- ㅇ INPI의 역할 : 기술이전에 관한 등록, 감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음.
  - 특허신청, TRADEMARK 등록, 양도, 양허 사항 감독
  - 특허의 이전 및 허여 조건 개선
  -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입과 관련, 정부 보조

- ㅇ INPI의 재량권 : 로얄티의 결정, 감세기준, 해외송금 등 외국 특허 양허인의 이익에 직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음.
  - 외국기술도입 여부 결정
  - 기술도입계약 조건 심사, 결정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도입계약의 등록거부
  - 정부정책, 법률에 위배되는 계약의 수정을 결정
  - 도입 및 양수 기술의 양수기업에 의한 습득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요구

○ INPI의 기능
- 특허와 상표의 등록 및 인정을 실시하며, 특히 외국기술 이전시 정부정책 및 경제개발의 기여도를 고려, 기술이전의 승인을 결정
- 기술이전, 특허 및 상표권 허여시 관계 정부기관과 사전 협의를 갖음. 즉 국세청과는 소득세중 ROYALTY와 기타 경비의 감면문제를, 중앙은행과는 ROYALTY와 경비의 송금문제를 협의.

3) 브라질 가입 국제협약

○ 특허, 상표, 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 보호 등 산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중 브라질은 파리협약의 서명국이며, 동협약의 개정판인 브랏셀 협약에도 가입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발족시킨 1967년의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했으며, 문학에술작품 보호협약인 베른 협약에도 가입했음.

○ 실질적으로 파리협약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4) 기술도입계약 신고

○ 기술이전 계약은 INPI가 발표한 결정 제 22 호 (1991.2.27)와 규범 제1 호 1991.7.2 발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 INPI 결정 제 22 호는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 상표권 허여 및 기술이전, 기술 및 과학원조에 관한 계약을 열거하고 있음

○ 기술이전 계약의 INPI 승인은 로얄티의 해외송금, 조세감면 등의 목적 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양수인이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기타 기술이전과 조건 등을 증명하는 송장등의 서류는 INPI 승인을 얻는데 유효한 자료 임

57. 소비자보호

○ 개요

브라질의 경우 Product Liability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소비자보호법"이 존재하며,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Product Liability와는 개념에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상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규정보다는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브라질의 소비자보호법은 상품자체의 하자의 보상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브라질 소비자보호법상에는 민사적인 배상은 물론, 공급자의 형사적인 책임 조항을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ㅇ 소비자보호법의 도입

- 입법과정

브라질의 소비자보호법은 1990년대 브라질의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상품이 다량 반입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방헌법 5조 32항과 170조 5항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따라 연방법률을 제정하고, 당시 대통령인 COLLOR DE MELLO가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연방헌법 5조에는 "모든 사람은 여하한 성격의 차이 없이 법 앞에 평등하며, 브라질인이나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동등하게 생명, 자유, 평등, 안전, 재산에 있어서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조 3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의 형태로 소비자 보호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연방헌법 170조에는 "인간노동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 경제질서는 사회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 5항의 "소비자보호(defesa do consumidor)"를 두고 있다.

- 정부의 주관부처

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브라질 정부는 1997년 국내 소비자연방령 제 2181호를 제정하여 "브라질 소비자보호 시스템(SNDC)"을 구축하고 연방정부 내 주관부처로는 브라질 법무부(Ministerio da Justica)내의 경제법률국(Secretaria de Direito Economico)이 선정되었으며, 실무는 동 경제법률국 산하의 소비자보호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 이외에도 각 주정부와 시정부내에서도 소비자보호를 관장하는 관련 부서를 둘 수 있다.

현재 각 주정부는 산하에 DECON(Defesa do Consumidor) 또는 PROCON(Protecao do Consumidor)이라는 이름의 소비자보호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 기구들은 소비자의 클레임을 받아 이를 등록시키고 1년 동안 클레임이 있었던 사안들을 정리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

ㅇ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 입증책임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공급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하자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공급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즉 입증책임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판상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

- 연대책임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이나 용역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관여한 모든 사람(자연인, 법인 불문)이 연대책임을 지며, 소비자에게 연대책임자 중 1인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변상을 한 경우에는 변상을 한

사람은 연대책임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책임 외의 기변상 부분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상품이나 용역이 내구성(durability)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내에 결함을 신고하여야 한다.

상품이나 용역이 내구성(durability)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 내에 결함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산정은 상품의 실질적인 인도 또는 용역 수행의 종료가 이루이진 시점부터 기산한다.

상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나타난 경우에는, 동 피해사실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시효가 유지된다.

58. 수입관리제도

브라질은 국내경제의 악화와 외채부담의 과중에 따른 외환수지 악화로 인해 그간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91년부터 국내 시장에서의 정부 간섭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고 자유경쟁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위해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 정책을 단행하였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개방의 근본적인 이유는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고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한편 대외의 문호개방 압력을 해소시키고 또한 국내 물가안정을 유지시키는데 있다.

관세 및 수입장벽은 브라질정부의 시장개방화정책에 힘입어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이나, 1998년부터 공정무역정착을 명분으로 통관검사 및 불법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ㅇ 수입관련 제세

- 공업제품세(IPI)
  브라질의 공업제품세(IPI)는 1982년 법령 제87.981호에 의거,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되는 연방세임. 국내상품일 경우 판매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상품은 세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따라 0-80%의 공업제품세가 부과되며 평균세율은 15%정도임.

- 상품유통세(ICMS)
  상품유통세는 브라질 주정부가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서 세율은 각 주별로 상이하여 평균 17%수준임. 예를 들어서 상파울루 주의 상품유통세는 18%임. 수입품의 경우 수입가격(CIF)에 관세와 IPI가 적용됨. 한편 건설, 광산, 전력, 액체 및 가스 연료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상품유통세가 면제되며,

대부분의 브라질산 수출에도 동 세금이 면제됨.

- 사회기여금세(PIS/COFINS)
사회기여금세는 종전의 경우 국내생산제품에만 부과해왔으나 2004년 5월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도 9.25%를 부과하고 있다.

- 기타 부대경비
. 수입허가서 발급수수료
. 해상운송기금(AFRMM)
. 세관창고료
. 통관대행 수수료

59. 관세제도

브라질 관세제도는 '76년 제정된 관세법에 기초하였으며, 종가세제로서 수입물품의 CIF 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브라질의 관세율표는 HS 분류체제를 기초로하여 품목을 세분화한 메르코수르 공동 상품분류기준인 NCM(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을 사용 한다.

브라질은 관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기 때문에 대외공동관세를 사용하며, 정보통신제품의 경우 예외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ㅇ 수입관세

대외공동관세의 경우 관세율이 0%-20%사이이며, 정보통신제품의 2006년까지 대외공동관세로 수렴예정으로 있다.

전기전자, 섬유류, 소비재 등 완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보통 14%-20%사이이며,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품의 경우 관세율이 0%이거나 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브라질은 국내경제의 악화와 외채부담의 과중에 따른 외환수지 악화로 인해 그간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91년부터 국내 시장에서의 정부 간섭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고 자유경쟁 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위해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 정책을 단행하였다.

브라질 정부의 수입개방의 근본적인 이유는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고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한편 대외의 문호개방 압력을 해소시키고 또한 국내 물가안정을 유지시키는데 있다.

관세 및 수입장벽은 브라질정부의 시장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이나, 1998년부터 공정무역정착을 명분으로 통관검사 및 불법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ㅇ 기타 제세

- 공업제품세(IPI)
브라질의 공업제품세(IPI)는 1982년 법령 제87.981호에 의거,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되는 연방세임. 국내상품일 경우 판매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상품은 세관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품목에 따라 0-80%의 공업제품세가 부과되며 평균세율은 15%정도임.

- 상품유통세(ICMS)
상품유통세는 브라질 주정부가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서 세율은 각 주별로 상이하여 평균 17%수준임. 예를 들어서 상파울루주의 상품유통세는 18%임. 수입품의 경우 수입가격(CIF)에 관세와 IPI가 적용됨. 한편 건설,광산,전력,액체 및 가스 연료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상품유통세가 면제되며, 대부분의 브라질산 수출에도 동 세금이 면제됨.

- 사회기여금세(PIS/COFINS)
사회기여금세는 종전의 경우 국내생산제품에만 부과해왔으나 2004년 5월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도 9.25%를 부과하고 있다.

60. 통관절차

ㅇ 수입승인 절차

수입승인을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의 BANCO DO BRASIL 등 4개 은행에 수입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수입승인 신청을 하면 브라질 현지 은행은 수입상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I/L 발급을 위한 제반절차를 거쳐서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브라질 대외무역국(DECEX)의 위임에 따라 현지 은행이 실시하게 된다.

수입자유화 조치 후 I/L 발급 소요기일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15일 이상 소요된다.

ㅇ 통관절차

수입상이 직접 통관을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공인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세관에 등록된 공인 통관사는 수입상으로부터 변호사가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건네 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입품의 통관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상을 대신하여 선적서류를 수취(통상적으로 2일 정도 소요)하고 도착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통관사는 해상운송기금(해상운송료의 25 %)를 납부하고 관세산정 및 통관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그 다음날에는 세관 창고료를 납부하고 세간에 다음날 실시될 수입품 검사 시간을 예약하며, 최종일에는 수입품 검사 및 산정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품을 통관하게 된다.

최근에는 브라질 현지의 통관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가격, 수량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으므로 통관에 필요한 B/L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지나친 언더밸류 시에는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61. 유통구조

ㅇ 유통구조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비해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이 크며 유력한 유통업체 발굴이 사업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이 큰 것은 국토가 광대하여 제조업체가 단독으로 유통망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물류시장이 복잡하여 전문유통업체가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할부시장이 발달한 데 주로 기인한다.

- 국내제품 구매

최근 3~4년간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감소와 신규 유통업체 진출 확대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수익률이 악화됨은 물론 유통업체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들은 현지 제조업체들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하 소매 체인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제조업체 -> 대형 유통업체 본사 -> 산하 소매 체인점

- 수입품 구매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입품 구매 시 직접 수입보다는 전문수입상을 통해 수입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환리스크를 줄이고 필요한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음으로써 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통상 수입상은 수입품을 해외 수출상을 통해 현찰거래(T/T)나 외상을 통해 수입한 후 이를 대형 유통업체에 30일, 60일, 90일 단위로 외상판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그러나 월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직접 수입을 통해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 수출업체 -> 수입업체 -> 대형 유통업체 본사 -> 산하 소매 체인점

62. 국제입찰제도

브라질의 국제입찰은 IBRD와 IDB 자금에 의해 기관별로 실시되거나 자체금융조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IBRD 자금의 경우 외국업체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IDB자금의 경우 회원국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고 있다.

국제입찰공고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1개월 전에 공고되나 포루투갈어로 된 입찰서류 구입 및 서류작성 등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현지 에이젼트를 통한 조기입찰파악 및 서류구입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IBRD 자금으로 실시되는 국제입찰은 연중 100 회 내외로 발주규모는 1천-2천만불 정도이며, 국제입찰 참가 희망자는 응찰자격을 확인 후 응찰서류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데, 통상 150불 내외 정도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요 입찰 구매품목은 의료용품,전기용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 하수도,항만공사,발전소 등 건설 프로젝트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국업체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브라질 업체가 입찰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거나 브라질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63. 외환관리제도

ㅇ 법적 근거

통일된 외환관리법은 없으며 중앙은행이 인가권을 보유하고 있다.

ㅇ 외환관리기관

- 중앙은행
. 외환 관리국(GACAM) : 외환거래관리와 환율조정
. 외자 등록국(FIRCE) : 로열티 지불 및 외화지출수반계약 등록업무
. 국제국(DIRIN) : 외환 송금제도 관리

- 외국환은행: 수출입관련 외화 출납업무

ㅇ 환율의 종류

브라질에는 공식 무역 및 송금 등에 사용되는 공정환율과 시장환율 등 2가지 환율이 존재한다.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은 큰 차이가 없다.

ㅇ 각종 송금 및 결제방법

- 수출입대금 결제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외환을 수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전 당일의 공식환율에 의거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 배당소득의 본국송금

정식 등록된 투자자본에 한해 공식 환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국외송금이 허용되며 배당소득의 송금한도는 없다. 외국인 주식소유자의 배당소득에는 15%의 주식배당세가 원천징수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브라질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 로얄티 및 수수료

외국의 모회사와 브라질 측 자회사간의 기술사용료 및 기술지원 인력에 대한 수수료 지급계약 금지를 철폐했다. 로얄티 지불액에 25%의 세금이 부과되며, 로얄티세 공제한도는 총판매액의 5% 이다. 외국기업과의 로열티 지불 계약은 브라질 공업 소유권청 (INPI)의 승인을 득하고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 대외채무

대외채무의 지불이자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중앙은행에 등록되어야 한다.

- 투자원금의 본국회수
정식 등록된 투자에 한해 공식환율을 적용, 투자원금의 본국송금이 가능하다.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의 재투자액도 투자자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투자원금의 해외송금시점에서 CAPITAL GAIN TAX 가 부과된다.

64.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ㅇ 시장 규모

브라질의 2004년도 총 GDP는 5,980억불로 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다. 브라질의 인구는 1억 8천만 명 이상으로 세계 5위이며 면적도 851만 Km2로 세계 5위이다.

ㅇ 시장 특성

- 내수중심시장
브라질은 막대한 천연자원과 인구로 인해 수출촉진보다는 내수중심시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1998년부터 수출촉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시장개방 역사가 짧다
브라질은 1990년부터 시장개방이 시작된 전문 수입상들이 많지 않고 수입상들도 무역실무에 밝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커
브라질은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이상의 기업이 브라질에 현지투자를 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국적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반면 다국적기업들의 기술이전 기피와 과거 브라질정부의 고 이자율정책 및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입대체 산업화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이 발달되지 않는 상강하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소비성향이 높다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저축률이 낮고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다.

- 빈부격차가 심하여 소비구조 이분화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심하여 부유층의 경우 선진국의 유명브랜드, 고가고품질제품을 선호하나 중산층 이하의 경우 저가제품,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 완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브라질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현지 생산이 부족한 부품 및 원자재의 경우 영 세율 또는 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상거래시 인간관계 중시
상거래 시 직접대면 상담을 통한 상담이 보다 효과적이며 상품의 질과 가격 못지 않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상담에 앞서 현지 축구, 음악, 기후, 음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 중남미국가 중 제조업기반 최고
브라질은 세계적인 자동차, 항공기, 철강 생산국으로서 중남미국가 중 제조업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 외상거래 선호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상관행상 D/P, D/A 등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현찰거래를 고집하기 보다는 제품에 대한 반응과 수입상의 신용도를 파악해 외상거래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65.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1. 브라질과 브라질인들의 특징

ㅇ 이민으로 구성된 다양성의 국가

브라질은 1500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화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일본,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이민이 정착하면서 발전해온 나라이다.

ㅇ 낙천적인 성격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민족은 이탈리아(포르투갈계는 현재 소수민족에 불과)로 낙천적이며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ㅇ 상술에 능함

이태리, 유태인, 중동계, 일본계, 중국계 등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과거 금융위기 경험으로 인해 상술에 뛰어나고 실리적이다.

ㅇ 과장법을 많이 씀

대국적인 기질로 인해 과장법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규모보다 적게 받아들이면 무난하다.

ㅇ 아마냥(Amanha) 문화

중남미국가들과 유사하게 브라질에도 아마냥(내일) 문화가 강해 급한 게 없고 느긋하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면 절대로 느긋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ㅇ 지역별로 특성 달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파울루의 경우 이태리계와 함께 독일계, 시리아 및 레바논계, 유대계, 일본계, 중국계, 한국계들이 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빠라나 주, 산타 까따리나 주, 히오 그란지 두 술 주 등 남부지역의 경우 독일계와 이태리계가 다수를 차지한다. 북동부의 바이아 주의 경우 포르투갈계와 흑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해당 민족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2. 상담시 유의사항

ㅇ 여유를 가져야

브라질인들에게 한국식으로 독촉할 경우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 쉬워 급할 경우에도 표정은 느긋하게 짓고 상담은 축구, 삼바, 기후 등 부드러운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대국의식이 강하다

브라질인들은 자국이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란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어 브라질인들이나 브라질산 제품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한다.

ㅇ 이민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 것

상파울루에서 상권은 주로 이태리계, 독일계, 중동계, 유대계, 스페인계가 주로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인들도 대부분 이들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중동계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편든다거나 이태리계 바이어와 만나면서 이태리인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ㅇ 신뢰관계가 중요

브라질은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식민지와 군정시대를 경험하면서 신뢰관계와 인맥을 중시한다. 브라질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때문이다.

ㅇ 정보는 돈과 연결

브라질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에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정보입수와 인맥구축은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ㅇ 외상거래 비중이 높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작은 선물이라도 상대를 감동시킨다

브라질인들에게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도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 브라질인들은 직원 생일은 물론이고 부활절, 성탄절 등 명절의 경우에도 선물을 교환한다.

66.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ㅇ 투자매력도

- 남미최대시장

브라질에 대한 투자 장점으로는 우선 거대한 내수시장을 들 수 있다. 즉 인구와 면적 면에서 세계 5위 대국이고 GDP면에서도 남미 최대국가이다.

- 남미진출거점

브라질은 남미진출 거점으로 최적지이다. 즉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 남미경제통합의 중심

브라질은 1995년 1월부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켰고 멕시코와 800개 품목에 달하는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했고 안데안과의 시장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주자유무역지대, 메르코수르-EU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시장확대가 가능하다.

- 중남미국가 중 제조업기반 최고

중남미국가 중 제조업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조달이 수월하고 제조업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남미 인근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하다.

-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다

브라질의 주요 기간산업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순수한 국내기업들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시장에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계 다국적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이 활기들 띄고 있다.

ㅇ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브라질의 경우 투자인센티브가 연방, 주, 시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등과 인센티브관련 별도 협상을 벌여야 한다. 투자인센티브는 투자규모 및 고용창출규모와 직결되어 있다.

나라가 거대하고 지역별로 인센티브제도, 시장규모, 시장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컨설팅은 유력 변호사, 회계사 등을 통하여 추진하면 효과적이다.

현지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주비자를 받아야 하며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파견직원 1인당 20만 불을 투자하거나 5만 불을 투자하는 대신 2년 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물론 동 투자금액은 사후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시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 파견 시 2/3에 해당하는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7. 투자유치정책

ㅇ 투자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정도와 함께 해당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 대한 협상력에 따라 상이하다.

투자인센티브는 주세의 감면이 대부분이며 감면률이 각주마다 상이하다. 연방세는 마나우스(MANAUS) 지역, 북부 9개 주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인센티브에는 보통상환 기간이 180일 이내인 저리의 수출금융 지원, 지방정부의 저가토지 제공, 지방세 혜택 부여(상품유통세 지급기일 연장: 최대 6개월), 인프라 및 공공이익 프로젝트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통한 융자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 시 얻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로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 감면

수출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출에서 발생된 소득은 기업 전체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

- 소득세 원천징수 면세

상품수출에 따른 커미션 송금액, 외국에서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시장개척 활동비, 광고비, 시장조사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해외지사 설치유지비 등은 소득세 원천징수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공업제품세, 상품유통세, 금융거래서 감면 혹은 면제

- 소비세 환급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전기, 유류의 원가비중이 2%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소비세 환급 등

68. 외국인투자제한

현 브라질 민법 3조에는 모든 민사, 사업상에 브라질인과 외국인은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은 건국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년에 제정된 외국인 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외국인 소유면적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목적의 외국인 법인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구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외국인투자금지업종으로는 전기 및 핵발전, 석유탐사 및 개발, 해상운송, 대중매체산업, 어업, 우편업 및 전보서비스업, 국내 항공산업 등이 있으나 통신, 내륙 및 연근해 해상운송, 천연가스 보급 및 석유산업, 전기배전사업 등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은행은 또한 브라질 상업은행에 대한 신규외국인 투자를 금하고 있으나 브라질 내 외국인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은 현지 투자은행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 지라도 브라질 정부의 국산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화 사용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면제혜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69. 투자진출절차

○ 사전준비 단계
- 변호사 선정 : 회사정관 작성
- 계리사 선정 : 법인설립 관련 세금 자문
- 현지 고용인 물색 : 회사설립 후 회사설립 증빙자료 등에 유리

○ 필요서류

- 투자회사: 회사정관, 회사설립 신청공문, 주재원 수권서 (POWER OF ATTORNEY)
- 주재원: 개인이력서, 가족사항, 신원 증명서
- 특기사항: 상기 서류는 브라질 영사관이 지정하는 번역소에서 포어로 번역 후 지정

공증 사무소의 인증을 거친 후 영사확인이 필요

○ 절차
- JUNTA CIMERCIAL에 회사설립 신고
- 회사등록번호 (CIC NO) 부여, 회사설립
  · 신설회사의 사장은 반드시 현지인이어야 함. (노동법상의 현지인 범주에는 영구 영주권 유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도 포함됨)

○ 투자자본금 국내 반입
- 외국인 임원 수에 따라 1인당 20만 불씩 투자자본금을 증액하여야 만 영주비자 획득 가능
- 단, 2004년 12월 국가이민위원회 규정 변경에 따라 1인당 5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2년 내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비자 획득 가능 (동 규정은 중국정부가 브라질 대두농장 개발 등 중국 근로자들의 대규모 대브라질 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브라질정부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분석됨)

  * 유의사항: 주재원의 '임원' 증명은 본사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한 직명 부여만으로는 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브라질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에 자본금 반입 신고

○ 현지 고용인 채용: 임원이 아닌 일반 주재원 1인당 현지인 2명
○ 변호사를 통해 연방정부 노동성에 주재원의 영주비자 신청
○ 브라질 연방정부 노동부의 통지서 접수 후 귀국, 서울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영주비자 획득
○ 무역업의 경우에는 브라질 대외무역국(DECEX)에도 신고하여야 함.
○ 개인 단독투자 (현지민과의 동업도 동일)
- 투자금액: US$5만 이상
- 여타사항은 회사법인 진출과 동일함.

70.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현재까지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법적 형태를 보면 대부분 현지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법상 사무소나 지점의 설치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내용상 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법률형태는 본사와 법적으로 독립된 현지투자법인이 된다.

현지법인은 브라질기업이기 때문에 브라질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법과 외국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브라질 외국인법은 제99조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브라질법인의 경영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본사파견직원이 영주권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현지법인의 대표로 임명하여 대리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는 영주권부여 조건으로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브라질의 노동법(CLT)은 제3편(노동보호에 관한 특별

규범편)의 제2장 (노동의 국산화)에서 내국인의 의무고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제352조는 피고용인이 3인 또는 그 이상인 기업의 경우 브라질인의 고용비율을 동법에서 설정하는 비율 이하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위 2/3비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전준비 단계

- 변호사 선정 : 회사정관 작성
- 계리사 선정 : 법인설립 관련 세금 자문
- 현지 고용인 물색 : 회사설립 후 회사설립 증빙자료 등에 유리

2. 필요서류

- 투자회사: 회사정관, 회사설립 신청공문, 주재원 수권서 (POWER OF ATTORNEY)
- 주재원: 개인이력서, 가족사항, 신원 증명서
- 특기사항: 상기 서류는 브라질 영사관이 지정하는 번역소에서 포어로 번역 후 지정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거친 후 영사확인이 필요

3. 절차

○ JUNTA CIMERCIAL에 회사설립 신고

○ 회사등록번호 (CIC NO) 부여, 회사설립
- 신설회사의 사장은 반드시 현지인이어야 함. (노동법상의 현지인 범주에는 영구 영주권 유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도 포함됨)

○ 투자자본금 국내 반입
- 외국인 임원 수에 따라 1인당 20만불씩 투자자본금을 증액하여야 만 영주비자 획득 가능
- 단, 2004년 12월 국가이민위원회 규정 변경에 따라 1인당 5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2년 내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비자 획득 가능 (동 규정은 중국정부가 브라질 대두농장 개발 등 중국 근로자들의 대규모 대브라질 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브라질정부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분석됨)

* 유의사항: 주재원의 '임원' 증명은 본사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한 직명 부여만으로는 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브라질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에 자본금 반입 신고

○ 현지 고용인 채용: 임원이 아닌 일반 주재원 1인당 현지인 2명
○ 변호사를 통해 연방정부 노동성에 주재원의 영주비자 신청
○ 브라질 연방정부 노동부의 통지서 접수 후 귀국, 서울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영주비자 획득
○ 무역업의 경우에는 브라질 대외무역국(DECEX)에도 신고하여야 함.

○ 개인 단독투자 (현지민과의 동업도 동일)
- 투자금액: US$ 5만 이상

4. 투자이민에 대한 영주권 부여규정

○ 연방이민위원회 규범적 결정(Resolucao Normativa; Normative Resolution) 제60호 (2004.10.6.).

○ 브라질에 투자이민 하려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함.

○ 영주권은 최소 미화5만불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 부여됨. 동 투자는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 예외적으로 투자금액이 미화5만 불에 미달되는 경우에 향후 5년 내에 최소 10명 이상의 브라질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창출계획이 있는 경우에 CNI는 영주권부여를 결정할 수 있음.

○ CNI이 영주권부여를 결정하면 노동부는 외무부에 비자를 허여하도록 통보함.

○ 투자이민의 경우 최초 발급되는 영주권신분증 (Cedula de Identidade)에 외국인투자자 및 5년 유효기간을 명시함.

○ 연방경찰국(법부부 산하)은 투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주권의 갱신을 금할 수 있음.

5. 현지법인 관리직에 대한 영주권부여 규정

○ 법인투자에 해당되는 규정: 연방이민위원회 규범적 결정 (Resolucao Normativa; Normative Resolution) 제62호 (2004.12.8.).

○ 회사의 관리직(경영자, 부장, 이사 등 경영권을 부여 받는 직위)으로 오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함.

○ 관리직에 대한 영주권부여는 그 직위와 권한을 결정한 회사결정문서(예컨대 주주의결서, 정관)가 관계기관에 적절히 등록된 경우에 부여.

○ 외국인을 초청하는 브라질기업은 초청하는 관리직 1인당 현금, 기술이전 또는 자본재를 5만불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함. 이 경우 기업설립 또는 관리자입국 후 2년 내에 10개의 신규고용창출이 있어야 함.

○ 또는 상기 고용창출의 의무를 벗어나려면 미화 20만불 상당의 투자를 해야 함.

○ 최초에 발급되는 외국인신분증 (Cedula de Identidade do Estrangeiro)에 그 직위를 명기하며 계약기간 또는 주주합의록에 기재된 기간에 따른 유효기간명시.

○ 영주권의 연장시 동일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관리직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9년 기간의 영주권발급.

○ 영주권자가 초청기업의 동의 하에 퇴사하거나 계열기업과 관계없는 기업으로 옮기려는 경우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 법무부가 그 허락여부를 결정.

○ 영주권자가 관리직을 떠나는 경우 초청회사는 노동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후임자 초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음.

71. 공장설립

브라질에서 공장설립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단 공장설립에 따른 주정부와 시정부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투자규모 및 고용창출규모, 투자진출업체의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상력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기계 등을 자본금 형식으로 현물 투자(ex tarifaria)도 가능하다.

브라질의 경우 지역별로 투자환경이 상이한 만큼 소비지에 대한 접근성, 물류환경, 투자환경, 투자인센티브,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세심한 사전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 사전준비 단계
- 변호사 선정 : 회사정관 작성
- 계리사 선정 : 법인설립 관련 세금 자문
- 현지 고용인 물색 : 회사설립 후 회사설립 증빙자료 등에 유리

○ 필요서류
- 투자회사: 회사정관, 회사설립 신청공문, 주재원 수권서 (POWER OF ATTORNEY)
- 주재원: 개인이력서, 가족사항, 신원 증명서
- 특기사항: 상기 서류는 브라질 영사관이 지정하는 번역소에서 포어로 번역 후 지정 공증 사무소의 인증을 거친 후 영사확인이 필요

○ 절차
- JUNTA CIMERCIAL에 회사설립 신고
- 회사등록번호 (CIC NO) 부여, 회사설립
  · 신설회사의 사장은 반드시 현지인이어야 함. (노동법상의 현지인 범주에는 영구 영주권 유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도 포함됨)

○ 투자자본금 국내 반입
- 외국인 임원 수에 따라 1인당 20만 불씩 투자자본금을 증액하여야 만 영주비자 획득 가능
- 단, 2004년 12월 국가이민위원회 규정 변경에 따라 1인당 5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2년 내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영주비자 획득 가능 (동 규정은 중국정부가 브라질 대두농장 개발 등 중국 근로자들의 대규모 대브라질 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브라질정부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분석됨)

* 유의사항: 주재원의 '임원' 증명은 본사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한 직명 부여만으로는 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브라질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에 자본금 반입 신고

ㅇ 현지 고용인 채용: 임원이 아닌 일반 주재원 1인당 현지인 2명
ㅇ 변호사를 통해 연방정부 노동성에 주재원의 영주비자 신청
ㅇ 브라질 연방정부 노동부의 통지서 접수 후 귀국, 서울주재 브라질 대사관에서 영주비자 획득
ㅇ 무역업의 경우에는 브라질 대외무역국(DECEX)에도 신고하여야 함.
ㅇ 개인 단독투자 (현지민과의 동업도 동일)
- 투자금액: US$ 5만 이상

72. 산업단지/마나우스 산업단지

ㅇ 개요

브라질 최대 산업단지인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는 1957년 법률 제3173/57호로 설립되고 1967년 2월 대통령령 제288호를 통해 마나우스시를 중심으로 약 10,000Km2에 달하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ZFM은 조세인센티브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ㅇ 기업설립

ZFM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ZFM관리청 (SUFRAMA, www.suframa.gov.br)에 산업프로젝트안(roteiro de Projeto Industrial)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Suframa 행정위원회(Conselho Administrativo da Superintendencia)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기업은 확정된 산업프로젝트와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제출한다.

ZFM투자의 특색은 투자요건중의 하나로 일정비율의 국산화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생산공정 (PPB:Processo Produtivo Basico)이 그것인데, 생산품별로 원자재 준비, 가공부터 최종품의 생산과정까지를 자세하게 나누어 국산화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ZFM가 단순한 수입제품의 조립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다.

ㅇ 투자인센티브

ZFM에 대한 조세 및 기타 투자인센티브는 SUFRAMA와 SUDAM을 통한 연방인센티브와 마나우스주 상공관광국(SIC)을 통한 주정부의 인센티브 및 마나우스 시의 인센티브로 나눠진다.

ㅇ 마나우스 진출기업

마나우스에는 500개사가 진출해 8만 5천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매출도 135억불에 달하고 있다.

마나우스에 투자진출한 주요기업으로는 노키아, 혼다자동차, 필립스, 삼성전자, 셈프도시바, 혼다 부품, 삼성SDI, 파나소닉, CCE, LG전자 등이 있다. 주요 판매시장은 브라질 내수시장(80억불), 미국(6억 2천만불), 멕시코(7천 4백만불), 콜롬비아(6천 3백만불), 베네수엘라(5천 9백만불), 칠레(4천 1백만불), 페루(3천 7백만불), 아르헨티나(3천4백만불), 파나마(3천 3백만불), 독일(2천 6백만불), 파라과이(7백만불) 등이다. 주요 판매제품은 휴대폰(1천 3백만대), TV(6백만대), 모니터(2백만대), DVD(120만대), 오토바이(87만대) 등이다.

73. 자유무역지대

브라질 북부의 아마조나스 주에 소재한 마나우스 시에 설치한 것이 브라질 내에서 유일한 자유무역지대로서 산업공단을 포함하고 있다.

ㅇ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 위치 : 브라질 아마존주 마나우스시
- 부지면적 : 10,000㎡
- 관리자 : 마나우스 자유무역 관리청 (SUFRAMA)
- 공단성격 : 자유무역지대내에 위치한 공단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공업지대와 상업지대로 구분되어 있음

- 교 통
. 항만 : 공단지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음
. 공항 : 마나우스 국제공항(마이애미, 파나마, 보고타 등과 연결됨)
. 도로 : 총 연장길이 5,500㎞ 에 이르는 아마존 횡단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음. 그러나 육로교통수단은 불편하여 대부분 항공, 수로운송에 의존함.

- 전력 : 풍부 (220/127V 공급)
- 용수 : 아마존강의 풍부한 수원으로 공업용수가 풍부.
- 인력조달
. 단순노동직은 풍부하며 평균 임금수준은 약 US$ 200
. 숙련공은 부족한 상황
- 입주 한국기업 :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서울전자통신 등

74. 조세제도

o 조세구조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연방, 주, 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세금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연방세 : 수출수입세, 법인세, 토지세, 소득세, 공산품세, 금융거래세, 사회보장세, 수표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한시운용)

- 주　세 : 소득부가세, 유통세, 자동차 소유세, 상속 및 증여세
- 시　세 : 토지가옥세, 서비스세, 유류세 등
- 연방정부는 사회 및 국민경제 이익에 관련된 주세 혹은 시세를 면제할 수 있음.

o 조세행정

연방세의 관리와 징수는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관세를 포함하여 브라질의 모든 국세의 행정은 세법과 관련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을 통해 수행됨. 이곳은 특별히 연방세의 행정에 책임이 있다.

재무부는 모든 개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CPF, 법인의 경우는 CNPJ 번호를 발급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75. 사회간접자본

ㅇ 전력

수력발전이 전체발전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뭄심화의 경우 전력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브라질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브라질정부는 전력난해소를 위해 '99년부터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화력발전소 건설 등) 및 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ㅇ 통신

1998년 통신공사 민영화를 계기로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통신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사업자간 경쟁치열로 통신요금이 저렴해졌으며 2003년 말에 무선통신 사용자수가 유선통신사용자수를 추월했을 정도로 무선통신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ㅇ 항공편

광대한 국토를 가진 브라질에서 항공망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요금은 비싼 편이다. 히도데자네이로(RIO DE JANERIO)와 상파울루(SAO PAULO)를 기점으로 하여 주로 VARIG, TRANSBRASIL 항공이 브라질 국내 각 도시를 편리하게 연결하고 있다. 특히 국내선 중에는 PONTES AEREAS(하늘의 다리)라는 편이 있어서,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와 상파울루(SAO PAULO) 간 및 히오(RIO) –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브라질리아(BRASILIA) 간을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예약 없이도 공석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ㅇ 지하철

지하철은 현재 상파울루(SAO PAULO)에는 자바과라(JABAQUARA)와 산타나(SANTANA)간의 남북노선과 바하푼다(BARRA FUNDA)와 이따께라(ITAQUERA)간의 동서노선, CLINICAS와 ANA ROSA를 연결하는 VILA MADALENA-ORATORIO선이 있어 비교적 편리하기는 하나, 아직 상파울루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미흡하고 치안도 좋지 않아 전철 이용이 순조롭지 않다.

ㅇ 도로

브라질의 주요 운송수단은 도로로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로가 화물 및 승객운송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향후 추가 도로건설 및 도로확장공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철도

브라질은 국토가 광활하고 철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철도가 극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정부는 내륙의 농산물 등을 수출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향후 철도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ㅇ 상하수도

식수오염이 심각하여 수돗물을 음료로 쓸 수 없고, 음료수는 별도 구입하여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오염된 물이 정화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강물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76. 노동여건

ㅇ 개요

브라질에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수첩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관계를 기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용인은 채용한 모든 피고용인들에 관한 신상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부는 반드시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기록부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명단과 외국인 고용자,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고용조건

한번 체결한 고용조건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노사간의 상호 합의 여하에 불구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 근무지 이동 및 직책 변경
. 피고용인은 종전의 위치를 되찾는 조건하에서만 책임직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음. 정상적인 경우, 고용인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거주지 이전을 필요로 하는 근무지 이동을 발령할 수 없음. 단 피고용인이 책임직에 있거나 회사가 장소이동을 할 경우는 예외임.
. 그러나 피고용인이 책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인이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가능함.
. 만일 근무지 이동이 일시적 성격일 경우에는 봉급의 25%에 해당하는 근무지 이동 수당 및 이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경비를 지급해야 함.

- 복직
. 피고용인이 군복무 또는 시민의 의무이행을 위해 직장을 떠날 경우에는 피고용인은

의무이행이 종료될 경우 다시 복직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피고용인은 부재기간 동안 그가 도달할 수 있었을 직위에 상당하는 혜택과 함께 전 직위에 복직할 수 있음. 피고용인은 외부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내에 복직의사를 고용인에게 전달해야 함.
. 피고용인이 건강사유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피고용인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급여를 받게 되며, 건강이 회복될 경우 모든 누적된 혜택과 함께 전 직위에 복직할 수 있음.

- 미성년자
.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12 - 14세 아동은 견습생으로만 근로가 허용됨.
. 노동법상 미성년자는14 - 18세이며, 노동법상 동 연령 동안 견습생으로 직업훈련을 받음.
. 모든 미성년자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조절해 주어야 함.
. 노동법상 제조업체 및 수송, 통신, 어업 관련 업체의 미성년 견습공 비율은 총 숙련공의 5%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고용인들의 친척들에게 우선권이 있음.

ㅇ 고용절차

최초 채용되는 피고용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고용계약서에 명시)을 수습기간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 동안 기본 급료액 보다 낮게 지급할 수도 있다.

- 노동수첩 및 노동대장 (CARTEIRA PROFESSIONAL)
. 고용계약에 근거, 지역 노동 감독국에서 발행한 노동수첩을 모든 노동자는 항시 지참, 사용자는 노동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감독국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수첩 : 직종, 급여, 채용일 / 계약기간, 근무조건 등
. 대장 : 노동부 등록내용, 종업원 자격, 초과근무 및 근로시간, 휴가 등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 주재원 1인당 2명의 현지인(시민권 소지자)을 채용하여야 한다. 영구 영주권 유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현지인으로 간주한다.

ㅇ 외국기술자 초청

외국인 기술자는 2년 계약으로 초청 가능하며, 2년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계약 갱신과 함께, 거주비자 신청은 법무부에 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한다. 계약 갱신 후 현지거주 비자는 갱신신청 접수 중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직계 가족의 현지거주 초청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21세 이상의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하나, 부양가족이라는 영사관의 증명이 있을 경우에만 현지거주 초청이 가능하게 된다.

ㅇ 외국업체의 주재원 교체

주재원이 교체된 경우, 신규 채용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교체 사실은 당해 현지회사가 브라질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체증명은 종전주재원의 출국확인이 날인된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노동부 신고 즉시, 종전 주재원의 비자는 무효화된다.

ㅇ 채용시 유의사항

채용 면접시 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퇴직 당시 회사의 추천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동수첩 등 고용관련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토요일 휴무를 위한 보충노동 시간 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근무개시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 및 조합에 등록시켜야 한다.

- 임산부

여성 노동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사실이 통보된 때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하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가 합석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조합 대표의 확인이 없는 경우, 임산부를 재고용 하거나, 퇴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출산 후에는 근무개시와 동시에 건강진단서를 징구하여 두어야 한다.

- 미성년자(14-18세)

취업, 경고, 해고, 급여 또는 가불 등의 지불 등 여하한 경우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참석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

- 건강진단서(EXAME MEDICO)

종업원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의 회사는 매 2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미만과 45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매년 징구, 보관하여야 하며, 취업 및 퇴직 시에도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결근한 노동자가 재 출근할 때에도 건강진단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 환자확인(ATESTADO)

피고용인이 환자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처(개인 또는 공립병원의사 여부), 병원 진료 및 입원 기간과 1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에는 국제공용표기로 된 이유와 병명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병명이 기재된 환자확인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치 못할 때에는 결근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족 또는 친지의 병환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도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77. 사회보장제도

ㅇ 사회보장기금(INPS)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부양자의 노동력 상실, 퇴직,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 불능 시 건강 및 의료보험료,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를 하기위한 강제 징수금 제도로서 월급의 32%(피고용자 11%, 고용주 21%)를 INPI에 납부하며, 현지 용어로는 INSS(INSTITUTO NACIONAL DE SEGURO SOCIAL)라고 한다.

ㅇ 퇴직연금(FGTS)

고용주에게 피고용주의 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시키는 일종의 연금제도로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이름으로서 급료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78. 현지 생활여건

ㅇ 주거여건

브라질은 치안이 불안하여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임대기간은 쌍방간 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하나 30개월이 보통 법정 계약기간이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1-3개월 전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다.

ㅇ 한국식품 조달여건

교포가 운영하는 25개의 한국식품점이 있어 각종 한국식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ㅇ 생필품 구입 용이성

브라질 내에는 초대형 쇼핑센터가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들어서 있어 생필품 구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대부분의 대형 쇼핑센터는 개별적으로 임차 하여 점포를 여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식 백화점과는 차이가 있다. 쇼핑센터내의 점포들은 각각 쇼핑센터 측에 매월 임차료를 납부하며 영업수익은 전액 점포에 귀속된다. 대부분의 대형 쇼핑센터에서 현지 산 공산품은 물론 수입물품이 판매되고 있어 구입이 용이하다. 또한 식품류 및 잡화는 주거단지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슈퍼체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으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ㅇ 병원, 약국

브라질은 1980년대에 정부차원의 보건시설 확충과 민간 의료부문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민간보건부문에서 괄목할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 특히 민간병원들이 상파울루 및 리오 데 자네이오 등 브라질 남부 및 남동부지역의 도시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비롯하여 저개발지역인 북부지방은 의사와 간호원의 수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 병원
. 공립병원: 주로 서민,극빈층이 이용, 일반진료는 무료에 가까움
. 민간병원: 치료 및 입원비 등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임

- 약국
. 시내 도처에 소재하고 있어 약품구입 용이, 일반 약품 가격 저렴
. 야간, 휴일에는 당번제 운영
. 단, 항생제, 마약성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만 구입 가능

ㅇ 레저여건

브라질의 레저여건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특히 주말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주말이면 해변가나 농장식 호텔, 골프, 관광코스 등이 발달되어 있다. 골프의 경우 상파울루 주에만 2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은 상파울루 시내에서 45Km 떨어진 LAKESIDE와 100Km 떨어진 ITU 골프장 등이다.

ㅇ 치안상태

브라질은 총기휴대가 용이하여, 권총강도가 상파울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지방에서 상파울루 및 리오 등 대도시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경제가 좋지 않아 권총강도 및 납치 등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지인들은 물론 주재상사원, 교포들의 경우에도 권총강도 및 납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02.4월에는 총영사관 부총영사자택에 권총강도가 침입,부총영사를 부상시키기도 했다. 경찰순찰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치안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강도를 만날 경우 반항 또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보다는 지갑이나 소지한 현금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으로서 귀금속이나 고가 외국차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차를 운전할 때도 사방을 주시하고 교차로에 정차 시에도 서행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파울루 및 리오를 방문할 경우 치안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강도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귀금속품 소지를 자재하고 이동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는 등 사전예방책이 최선이며, 강도를 당한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79.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ㅇ 집 구하기

상파울루 지역 주재원들의 경우 현지의 치안이 불안하므로 치안상태가 비교적 좋은 모룸비(MORUMBI)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업체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가격, 교육여건, 치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을 구하면 된다.

ㅇ ID신청

공무원들의 경우 관용여권으로 들어와서 현지 외무성에 공용 ID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재원들의 경우에는 현지 도착후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ID가 발급되기 까지는 주로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되며, 영주비자의 경우에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ㅇ 현지화 구좌 개설

브라질은 수표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고 치안불안으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앞수표 개념과 다른 개인 당좌수표가 대부분이며 수표 사용시에는 현장에서 수표에 서명날인하여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화 당좌계좌 개설은 필수적이며, ID 등이 발급된 후 정식으로 계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화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ㅇ 운전면허 신청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이 별로 없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교통국(DETRAN)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주재원으로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현지의 공증번역사(TRADUTOR JURAMENTADO)에 포어 원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의뢰하고 이를 교통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국에 운전면허증 신청시 발급일까지는 주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80. 자녀 교육여건

브라질 최대 상업도시인 상파울루 시의 경우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CHAPEL,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PACA, 영국계 SAINT PAUL, SAINT NICHOLAS와 미국계 GRADED 등이 있다.

외국인 학교는 브라질 부유층 자녀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로 입학시험이 상당히 까다롭다. 정기시험은 연 2회 실시되며, 결원시 수시로 보충 시험이 있으나, 학급정원 문제로 인해 최대 1년을 입학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기도 한다.

81. 진출기업/현지진출 한국기업

□ 대우 인터내셔날 (Daewoo Do Brasil Imp. E Exp. Ltda.)

(기본정보)
Add : Av. Paulista 777, 13 ANDAR CJ131/132, Sao Paulo CEP 01311-100
Tel : (55-11)3285-5699
Fax : (55-11)3266-4125
E-Mail : hykim@daewootrade.com.br
Home Page : www.daewoo.com
Pres : 김흥렬/H.Y Kim

(주요현황)
1)업종 : 무역업
2)취급분야 : 철강,금속, 화학, 자동차부품, 산기플랜트, 전자정보, 섬유,물자 등
3)진출형태 : 지사
4)진출연도 : 1980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11
6)설립자본금 : US$ 200천
7)연간매출액 : US$ 20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주)대우인터내셔날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Tel : (02) : 759-2114
Fax : (02) : 753-9489
Pres : 이태용

□ 대우전자(Daewoo Electronics Co., Ltd.)

(기본정보)
Add : Av. Paulista, 491-2 andar, CJ 24,Sao Paulo CEP 01311-100
Tel : (55-11) : 3253-5111
Fax : (55-11) : 3266-2136
E-Mail : htsong@dwe.co.kr
Home Page : NA
Pres : 송희태

(주요현황)
1)업종 : 무역
2)취급분야 : 전자 및 정보통신제품
3)진출형태 : 지사
4)진출연도 : 1995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2
6)설립자본금 : US$ 800천
7)연간매출액 : N.A.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 모기업)
모기업 : (주)대우전자
Add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Tel : (02) : 360-7114
Fax : (02) : 364-5588
Pres : 김충훈

□ 메디슨 : Medison Do Brasil

(기본정보)
Add : R. Apiacas,910,Perdizes,Sao Paulo,CEP 05017-020
Tel : (55-11) 3875-6101
Fax : (55-11) 3875-6105
E-Mail : viannes@medison.com.br
Home Page : www.medison.com.br/
Pres : 김기남/K.N Kim

(주요현황)
1)업종 : 현지판매
2)취급분야 : 의료기기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7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50
6)설립자본금 : US$ 2백5십만
7)연간매출액 : US$ 13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주)메디슨
Add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메디슨벤쳐타워
Tel : (02)2194-1000/2194-1400
Fax : (02)2194-1168
Pres : 최균제/이승우

□ 범양상선 : Pan Ocean Shipping Co., Ltd., Rio de Janeiro Office

(기본정보)
Add : R.Acre,30,50 andar,Cep.20081000,Rio de Janeiro, RJ
Tel : (55-21) 2213-8788
Fax : (55-21) 2518-2287
E-Mail : panrio@lachmann.com.br
Home Page : N.A.
Pres : 임은택/E.T Lim
1)업종 : 서비스업
2)취급분야 : 철광석, 곡물 등의 수송
3)진출형태 : 사무소
4)진출연도 : 1994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0
6)설립자본금 : N.A.
7)연간매출액 : US$ 70천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범양상선 주식회사
Add : 서울 중구 남창동 51-1
Tel : (02)3165-114
Fax : (02)754-8492
Pres : 장진원

□ 브라질외환은행 : Banco KEB Do Brasil S/A

(기본정보)
Add : Av. Chucri Zaidan 940 Torre II,18 and. Cep 04523-110,Sao Paulo,SP,Brasil
Tel : (55-11)5188-1122
Fax : (55-11)5188-1120
E-Mail : sgw@bancokeb.com.br
Home Page : www.keb.co.kr
Pres : 황순갑/S.G Whang

(주요현황)
 1)업종 : 금융업
 2)취급분야 : 은행업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8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2 : 7
 6)설립자본금 : US$ 10,000천
 7)연간매출액 : N.A.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한국외환은행
Add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Tel   : (02)729-8000
Fax   : (02)775-8325
Pres   : Robert E. Fallon

□ 삼성물산 : Samsug Do Brasil S/C Ltd.

(기본정보)
Add   : R. Prof. Manoelito De Ornellas 303, 2sndar, Chacara, Santo AntonioCEP04719-040
Tel   : (55-11)5641-3979
Fax   : (55-11)5641-8455
E-Mail : santiago@samsung.com
Home Page : www.samsung.com
Pres   : 김선영/Stanley Kim

(주요현황)
 1)업종 : 무역업
 2)취급분야 : 프로젝트, 섬유, 화학, 정보통신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0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8
 6)설립자본금 : US$ 249천
 7)연간매출액 : US$ 10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삼성물산(주)
Add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삼성플라자빌딩
Tel   : (02)2145-2114
Fax   : (02)2145-3114
Pres   : 정우택

□ 삼성SDI : Samsung SDI Brasil Ltda

(기본정보)
Add : R.Prof.Manoelito de Ornellas 303,Terreo A,Sao Paulo,SP
Tel : (55-11) 5644-9163
Fax : (55-11) 5644-9165
E-Mail : keunbae.lee@samsung.com
Home Page : www.samsungsdi.co.kr
Pres : 이근배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브라운관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7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8 : 1,300
6)설립자본금 : US$ 200백만
7)연간매출액 : 12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삼성 SDI
Add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15-18층
Tel : (02)727-3100
Fax : (02)727-3449
Pres : 김순택

□ 삼성전자 : Samsung Eletronica Da Amazonia Ltda.

(기본정보)
Add : R. Prof.Manoelito De Ornellas 303, Sao Paulo CEP 04719-040
Tel : (55-11) 5644-6400
Fax : (55-11) 5641-0726
E-Mail : parkjwon@samsung.com
Home Page : www.samsung.com.br
Pres : 박종원/J.W Park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전기, 전자제품(가정용 전자, 정보통신 등)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86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4 : 500
6)설립자본금 : US$ 113백만
7)연간매출액 : US$ 15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삼성전자(주)
Add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Tel : (02) 727-7114
Fax : (02) 727-7985
Pres : 윤종용

□ 수출입은행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ao Paulo Rep. Office

(기본정보)
Add : Av. Paulista, 1439, CJ 142, C. Cesar, Sao Paulo CEP 01311-200
Tel : (55-11) 283-3021
Fax : (55-11) 287-0548
E-Mail : kyungha12@catholic.or.kr
Home Page : www.koreaexim.go.kr/
Pres : 최경하

(주요현황)
1)업종 : 정부투자기관
2)취급분야 : 은행
3)진출형태 : 사무소
4)진출연도 : 1983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2 : 1
6)설립자본금 : N.A.
7)연간매출액 : N.A.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한국수출입은행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Tel : (02) : 3779-6114
Fax : (02) : 784-1030
Pres : 이영회

□ SK해운 : SK Shipping

(기본정보)
Add : Av. Rio Branco 25, 16 Andar, Centro, Rio de Janeiro CEP 20090-003
Tel : (55-21) 2516-1142
Fax : (55-21) 2516-1876
E-Mail : wschu@unisys.com.br
Home Page : www.skshipping.com
Pres : 주원석/W.S. Chu

(주요현황)
 1)업종 : 해상운송업
 2)취급분야 : 브라질중심의 벌크화물(철강, 곡물, 석탄 등)
 3)진출형태 : 사무소(협력업체취업형태)
 4)진출연도 : 1994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0
 6)설립자본금 : N.A.
 7)연간매출액 : N.A.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SK해운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SK남산빌딩 19층
Tel   : (02) 3788-8400
Fax   : (02) 3788-8300
Pres   : 이승권

□ LG상사 : LG Do Brasil Ltd.

(기본정보)
Add   : Av. Chucri Zaidan,940,18andar,Cep.04523-110,Sao Paulo,SP
Tel   : (55-11) 2104-0075
Fax   : (55-11) 2104-0080
E-Mail : cbjong@lgi.co.kr
Home Page : www.lgicorp.com
Pres   : 장봉정

(주요현황)
 1)업종 : 무역업
 2)취급분야 : 화학,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기계, 물자(자원), 광물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87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8
 6)설립자본금 : US$ 250천
 7)연간매출액 : US$ 10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LG상사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3-5114
Fax   : (02) 3773-5446
Pres   : 이수호

□ LG전자(마나우스) : 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

(기본정보)
Add : Av. Javari, S/N-Distrito Ind. Manaus CEP 69075-110
Tel : (55-92) 616-8700
Fax : (55-92) 616-8787
E-Mail : cbcho@lge.com
Home Page : www.lge.co.kr
Pres : 조중봉/C.B Cho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TV, VCR, MWO, DVD, REF, A/C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6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5 : 850
6)설립자본금 : US$ 37,750천
7)연간매출액 : US$ 2억(00)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LG전자(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7-3357
Fax : (02) 3777-3400
Pres : 김쌍수

□ LG전자(상파울로) : LG Electronics De Sao Paulo Ltda.

Add : Av.Dom Pedro I -W 7777, Taubate, SP CEP 12010-970
Tel : (55-12)280-5555,(55-11)5103-0990
Fax : (55-12)280-5500,(55-11)5103-2070
E-Mail : cbcho@lge.com
Home Page : www.lge.co.kr
Pres : 조중봉/C.B Cho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Monitor, Cellular, CD Rom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6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21 : 980
6)설립자본금 : US$ 32백만
7)연간매출액 : US$ 3억(00)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LG전자(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Tel : (02) 3777-3357
Fax : (02) 3777-3400
Pres : 김쌍수

□ 포항제철 : POSCO Do Brasil Ltda

(기본정보)
Add : Av.das Americas 3434,Bl.4,Sl306,Barra da Jijuca,RJ
Tel : (55-21) 3431-3496
Fax : (55-21) 3431-3497
E-Mail : jhma@posco.co.kr
Home Page : N.A.
Pres : 마중하/J.H Ma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철강원료
3)진출형태 : 사무소
4)진출연도 : 1978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2 : 1
6)설립자본금 : N.A.
7)연간매출액 : N.A.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Add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Tel : (054) 220-0114
Fax : (054) 220-6000
Pres : 이구택

□ 코브라스코 : KOBRASCO;Companhia Coreano-Brasileira de Pelotizacao

(기본정보)
Add : Av. Dante Michelini 5500, Jardim Camburi,Ponta de Tubarao,Vitoria,ES,Brasil
Tel : (55-27) 3333-5984
Fax : (55-27) 3333-4762
E-Mail : wwjeon@posco.co.kr
Home Page : N.A.
Pres : 전원우/W.W Jeon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제철원료(Pellet)
 3)진출형태 : 합작투자
 4)진출연도 : 1995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3:95
 6)설립자본금 : US$70,000천
 7)연간매출액 : US$130,000천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50:50

(국내모기업)
모기업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Add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Tel : (054) 220-0114
Fax : (054) 220-6000
Pres : 이구택

□ 한국수출보험공사 : Korea Export Insruance Corporation, Sao Paulo Rep. Office

(기본정보)
Add : Av. Paulista, 453, CJ 21, Paraiso, Sao Paulo Cep 01311-000
Tel : (55-11) 284-1105
Fax : (55-11) 284-4081
E-Mail : chj0133@keik.or.kr
Home Page : www.keic.or.kr
Pres : 조한종

(주요현황)
 1)업종 : 금융업, 공공기관
 2)취급분야 : 수출보험
 3)진출형태 : 사무소
 4)진출연도 : 1994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2 : 1
 6)설립자본금 : N.A.
 7)연간매출액 : N.A.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Add :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8층
Tel : (02)399-6800
Fax : (02)399-6882
Pres : 임태진

□ 한국타이어 : Hankook Tire Do Brasil Com. Ltda.

(기본정보)
Add : Av. Paulista, 1439 Cj. 134, Sao Paulo CEP 01311-200
Tel : (55-11) 289-0366
Fax : (55-11) 289-5711
E-Mail : leonardo@hanta.co.kr
Home Page : www.hankook.com.br
Pres : 오대환/D.H Oh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2)취급분야 : 타이어, 튜브, Flap, 휠
3)진출형태 : 투자법인
4)진출연도 : 1994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2 : 3
6)설립자본금 : US$ 600천
7)연간매출액 : US$ 4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한국타이어(주)
Add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Tel : (02) 2222-1000
Fax : (02) 2222-1100
Pres : 조중환

□ 한진해운 : Hanjin/Senator Lines do Brasil Ltda.

(기본정보)
Add : Av.Nacoes Unidas 12551, CJ1808, SP, Sao Paulo CEP 04578-000
Tel : (55-11) 3043-7679
Fax : (55-11) 3043-7875
E-Mail : yilim@hanjin.com
Home Page : www.hanjin.com
Pres : 임영준/Y.J Lim

(주요현황)
1)업종 : 서비스업
2)취급분야 : 해상운송업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1997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30
6)설립자본금 : US$ 20만
7)연간매출액 : US$ 4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Senator Lines(독일)

(국내모기업)
모기업 : (주)한진해운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진해운빌딩 25-11, P.O.Box 843
Tel : (02) 3770-6114
Fax : (02) 3770-6746
Pres : 우수호

□ 유코카케리어스 : Eukor Car Carriers

(기본정보)
Add : R.Tabapua,111,cj 21/22,Cep 04533-0101,Sao Paulo,SP
Tel : (55-11)3168-9276
Fax : (55-11)3168-9276
E-Mail : hskim@eukor21.com
Home Page : www.eukor21.com
Pres : 김학수/H.S Kim

(주요현황)
1)업종 : 서비스업
2)취급분야 : 해상운송
3)진출형태 : 지사
4)진출연도 : 1994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0
6)설립자본금 : N.A.
7)연간매출액 : US$ 40천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현대상선주식회사
Add :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Tel : (02) 732-6935
Fax : (02) 733-8675
Pres : 노정익

□ 효성 : Hyosung Do Brasil

(기본정보)
Add : Av. Paulista, 1439, Conj. 154, Cerqueira Cesar, Sao Paulo CEP 01311-200
Tel : (55-11) 284-6954
Fax : (55-11) 285-1957
E-Mail : hohi@hyosung.com
Home Page : www.hyosung.co.kr
Pres : 양상훈/S.H Yang

(주요현황)
 1)업종 : 제조업, 무역업
 2)취급분야 : 섬유원료, 기계류, 화학원료 등
 3)진출형태 : 지사
 4)진출연도 : 1993년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3
 6)설립자본금 : US$ 700천
 7)연간매출액 : US$ 20백만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주)효성
Add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0
Tel   : (02) 707-7000
Fax   : (02) 707-0130
Pres   : 조석래

□ 제본 : JEBON DO BRASIL LTDA

(기본정보)
Add   : Av, Giovanni Gronchi, 5443 sala11, Morumbi, Sao Paulo -SP
Tel   : (55-11) 3749-0676
Fax   : (55-11) 3743-6487
E-Mail : jebon@terra.com.br
Home Page : www.jebon.com
Pres   : 이시태/S.T Lee

(주요현황)
 1)업종 : 전자부품
 2)취급분야 : Printed circuit boards, LCD/LED display, Power supply, Detonator, Power cables
 3)진출형태 : 현지법인
 4)진출연도 : 2001
 5)종업원현황(본사파견:현지채용) : 1 : 1
 6)설립자본금 : US$: 200천
 7)연간매출액 : US$-
 8)합작선 및 비율(한국:브라질) : 단독

(국내모기업)
모기업 : JEBON CORP.
Add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텍크노빌 7 - 9 floor.
Tel : (031) 902-9161
Fax : (031) 902-7775
Pres   : 박두희

82. 주요경제지표

ㅇ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GDP	U$억	5,366	6,022	5,098	4,594	4,933	6,050
1인당 GDP	U$	3,240	3,541	2,957	2,631	2,789	3,417
경제성장률	%	0.8	4.4	1.3	1.9	-0.2	4.9
산업생산 증가율	%	-0.7	6.6	1.6	2.7	0.1	8.3
물가상승률 (IPCA)	%	8.9	6.0	7.7	12.5	9.3	7.6
실업률(연말)	%	6.28	4.83	10.6	10.5	10.9	9.6
콜금리(연말)	%	19	16.5	19.0	25.0	16.5	17.75
수출	U$억	480.1	550.9	582.2	603.6	730.8	964.8
수입	U$억	492.7	558.2	555.8	472.3	482.5	627.8
무역수지	U$억	-12.6	-7.3	26.4	131.3	248	337.0
경상수지	U$억	-253.4	-242.3	-232.2	-76.4	41.8	116.7
외국인 직접투자	U$억	285.6	327.8	224.6	165.9	101.4	181.7
외환 보유고	U$억	363.4	330.1	358.7	378.2	492.9	529.4
총외채	U$억	2,256.1	2,169.2	2,099.3	2,107.1	2,149.3	2,021.9
환율(연말)	U$=R$	1.7890	1.9554	2.3204	3.530	2.902	2.654

자료원 : 브라질 중앙은행,IPEA,IBGE, (2005.9)

83. 대외거래지표/주요대외거래지표

ㅇ 주요 대외거래지표

(단위 : US$억)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수지	-253.4	-242.3	-232.2	-76.4	41.8	116.7	
무역수지	-12.6	-7.3	26.4	131.3	248.0	337.0	246.0
-수출	480.1	550.9	582.2	603.6	730.8	964.8	1,014
-수입	492.7	558.2	555.8	472.3	482.5	627.8	768
외환보유고	363.4	330.1	358.7	378.2	492.9	529.4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2005.9)

* 잠정치

84.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국별 수출입통계

< 주요 수입국 >

(단위 : 백만불)

국명	2002	2003	2004
미국	10,285	9,564	11,337
아르헨티나	4,747	4,673	5,572
독일	4,398	4,205	5,072
중국	1,554	2,148	3,710
나이제리아	1,091	1,493	3,499
일본	2,347	2,521	2,868
프랑스	1,742	1,764	2,284
이탈리아	1,757	1,753	2,048
알제리	1,014	1,114	1,935
한국	1,067	1,079	1,730
칠레	654	798	1,390
영국	1,341	1,202	1,355
사우디아라비아	677	888	1,232
스페인	975	974	1,175
스위스	887	935	1,072
대만	678	646	981
총계	47,232	48,260	62,782

자료원 : 브라질 관세청(2004.12)

< 주요 수출국 >

(단위 : 백만불)

국명	2002	2003	2004
미국	15,354	16,692	20,038
아르헨티나	2,342	4,561	7,373
화란	3,182	4,246	5,917
중국	2,520	4,533	5,440
독일	2,537	3,136	4,036
멕시코	2,342	2,741	3,948
이탈리아	1,817	2,208	2,904
일본	2,098	2,311	2,768
칠레	1,461	1,880	2,546
프랑스	1,524	1,715	2,190
영국	1,769	1,899	2,117
스페인	1,105	1,535	1,975
벨기에	1,888	1,791	1,920
러시아	1,252	1,500	1,658
베네수엘라	797	606	1,465
한국	852	1,223	1,429
총계	60,362	73,084	96,475

자료원 : 브라질 관세청(2004.12)

8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품목별 수출입통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2	2003	2004
광물성연료	7,025	7,437	11,438
기계류	8,146	7,787	9,325
전기기기	7,041	6,771	8,703
유기화학품	2,964	3,108	4,073
자동차	2,643	2,519	3,153
비료	1,228	1,711	2,585
플라스틱제품	1,818	1,846	2,383
광학정밀기기	1,837	1,812	2,358
의료용품	1,528	1,512	1,785
화학공업제품	798	1,020	1,487
고무제품	846	943	1,196
곡물	1,067	1,434	1,044
항공기	655	591	888
무기화학품	633	696	816
철강제품	599	615	807
총계	47,232	48,260	62,782

자료원 : 브라질관세청, (2004.12)

< 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불)

구분	2002	2003	2004
자동차	4,476	6,041	8,376
기계류	4,226	5,628	7,768
철강	3,460	4,702	6,709
육류	2,751	3,641	5,549
곡물	3,070	4,338	5,473
철광석	3,192	3,644	5,237
광물성연료	2,951	3,796	4,422
사료	2,299	2,712	3,401
항공기	2,799	2,050	3,371
전기기기	3,094	3,156	3,322
목재	1,765	2,081	3,044
설탕	2,211	2,291	2,822
신발	1,516	1,622	1,899
커피	1,331	1,424	1,892
알루미늄	1,263	1,502	1,868
목재펄프	1,161	1,744	1,722
총계	60,362	73,084	96,475

자료원 : 브라질 관세청, (2004.12)

8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추이

<대 브라질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6	1,497	-1.4	1,325	-4.6	172
1997	1,711	14.3	1,239	-6.5	472
1998	1,792	4.7	693	-44.0	1,099
1999	1,209	-32.5	909	31.2	299
2000	1,724	42.6	935	2.8	789
2001	1,611	-6.5	1,126	20.4	486
2002	1,247	-22.6	1,248	10.9	-1
2003	1,137	-8.8	1,619	29.8	-482
2004	1,785	56.9	2,195	35.6	-410
2005.1-4	1,317	28.6	1,275	15.3	41

자료원 : KOTIS, (2005.9)

87.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ㅇ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MTI	품목명	2003		2004		2005 (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1	산업용전자제품	490	26.5	873	78.3	629	21.6
83	전자부품	118	9.6	221	87.8	171	36.1
21	석유화학제품	66	20.9	75	13.3	78	140.2
82	가정용전자제품	118	-3.3	131	10.8	88	17.6
43	직물	62	-57.3	72	15.1	49	8.2
72	산업기계	31	33.0	40	29.5	44	159.9
741	자동차	13	-57.4	29	121.7	28	76
22	정밀화학제품	34	-19.2	40	19.0	25	7.5
24	요업제품	21	31.8	35	68.6	18	2.8
61	철강제품	12	-46.1	20	64.2	17	49.3
42	섬유사	24	-31.5	41	69.6	21	-8.5
31	플라스틱제품	20	19.7	32	57.9	19	10.2
71	기초산업기계	23	-58.3	26	15.7	22	110.7
75	기계요소공구금형	19	-12.5	26	36.9	16	2.0
41	섬유원료	4	28.5	13	240.4	9	32.4
3203	타이어	16	-23.7	16	-0.9	12	10.3
84	중전기기	15	-9.4	18	21.4	10	-15.7
	총계	1,137	-8.8	1,785	56.9	1,100	28.1

자료원 : KOTIS, (2005.9)

ㅇ 한국의 대브라질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MTI	품목명	2003		2004		2005 (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1	금속광물	342	8.7	520	52.2	388	45.6
61	철강제품	363	26.5	452	24.2	284	3.6
01	농산물	458	9.0	678	47.8	282	4.6
13	광물성연료	167	334.3	162	-3.1	160	179.2
25	제지원료및종이제품	50	13.9	76	50.9	39	-16.6
21	석유화학제품	35	34.1	40	14.7	20	1.4
33	가죽및모피제품	15	-26.5	23	57.3	20	111.4
22	정밀화학제품	12	2.7	13	12.6	10	47.2
02	축산물	4	-51.5	8	87.9	10	297.7
62	비철금속제품	4	-69.9	24	555.4	5.8	-61.8
12	비금속광물	8	-5.9	7	-11.8	5	39.2
03	임산물	15	-7.5	15	-1.4	5.7	-49.7
83	전자부품	14	32.2	7	-53.0	6	36.8
71	기초산업기계	7	42.5	7	-3.0	3.3	-34.4
	총계	1,619	29.8	2,195	35.6	1,275	15.3

자료원 : KOTIS, (2005.9)

88. 대외투자진출통계

ㅇ 브라질의 대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단위 : U$ 백만)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투자유출액	3,025	2,404	3,234	2,849	3,067	1,986	10,757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 (2005.9)

89.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ㅇ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 U$억)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178.7	263.5	312.4	327.8	224.6	165.7	101.4	181.7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2005.9)

90.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투자교류통계

○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총계	60	795,080	49	366,533
제조업	29	472,229	25	306,184
농림어업	1	23,780	0	0
광업	1	75,012	1	43,064
건설업	4	6,502	2	1,345
도소매업	11	71,549	9	9,561
운수창고업	4	774	3	389
통신업	3	135,268	2	2,183
숙박음식업	1	2,000	1	2,000
서비스업	5	7,555	5	1,605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05.9월)

91. 물가금융지표

○ 주요 물가금융지표

	단위	2001	2002	2003	2004
소비자물가지수(IPC-Fipe)	%	7.1	9.9	8.2	6.0
도매물가지수(IPCA)	%	7.7	12.5	9.3	7.6
통화량	백만헤알	639,792	789,155	880,639	980,939
통화증가율	%	18.1	23.3	11.6	11.4
연말주가	포인트	13,509	11,268	-	26,196
연말환율	U$1=R$1	2.3196	3.5325	2.9020	2.654
연말콜금리	%	19.05	25.0	16.5	17.75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2004.12)

92. 노동통계

○ 노동관련 주요통계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실업률(%)	%	4.8	10.6	10.5	10.9	9.6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 (2004.2)

○ 평균임금 추이

(단위 : 헤알)

연도	월	민간분야	공공분야	전체
2003	1	849	1,417	947
	2	841	1,354	913
	3	846	1,308	912
	4	824	1,310	887
	5	816	1,310	888
	6	808	1,303	875
	7	829	1,305	887
	8	808	1,319	873
	9	797	1,303	863
	10	808	1,304	868
	11	841	1,351	893
	12	1,015	1,619	1,031
2004	1	864	1,338	919
	2	865	1,359	931
	3	856	1,333	922
	4	855	1,341	915
	5	870	1,352	932
	6	872	1,347	941
	7	857	1,350	926
	8	857	1,376	939
	9	840	1,363	928
	10	854	1,362	930
	11	911	1,466	970
	12	1,092	1,777	1,123

자료원 : IBGE, (2004.12)

93.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브라질은 외국인투자관련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으며,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해야 함.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대외송금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외자등록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프랜차이징,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브라질 외무부에서 투자 장려 및 기술이전시스템(the Investment Promo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ystem : SIPRI)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 16개 주에 23개의 사무소(Focal Points)와 87개국 106개의 브라질 대사관 및 영사관 상무과에서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알선업무를 수행중임.

○ 세제 및 외환 관련기관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중앙은행(Central Bank of Brazil)
- 연방국세청(Federal Reserve Service)

○ 기술이전 및 프랜차이징 관련기관
- US Foreign Commercial Service
-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of Rio de Janeiro

○ 특허권, 기술이전, 라이센싱, 로얄티 관련기관
- 국가산업재산권협회(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수출입 및 민영화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기관
- 경제사회개발은행(National Bank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NDES)

○ 지역별 인센티브 관련기관
- 상공개발부(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Development)
- 북동부지역관리청(Superintendency of North-east Development: SEDENE)
- 아마존지역관리청(Superintendency of amazonas Development: SUDAM)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관리청(Superintendency of the Manaus Free-Trade Zone: SUFRAMA)

○ 환경 관련기관
- Secretary of the Environment

○ 노동 관련기관
- 노동부(Ministry of Labour)

○ 주식 및 금융 관련기관
-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 선물거래소(Commodities and Futures Exchange)
- 상파울루 증권거래소(Sao Paulo Stock Exchange)

○ 외국인 광산개발 관련기관
- 광업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

○ 기타
- 상파울루주공업협회(FIESP) : 상파울루주에 대한 외국인투자 안내

<현지 투자컨설팅사>

Ernest & Young Servico Tributario Ltda
주소 : Av. Juscelino Kubstcheck,1830 -Torre 1 -5o. floo 04543-900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Carlos Romero
Tel : (55-11) 821-5326 Fax : (55-11)828-9042

BDO Directa Consultores e Auditores
주소 : R. Senador Felicio dos Santos, 392 -Aclimacao 01511-010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Benedito Ivo Lodo Filho (Director)
Tel : (55-11)277-2199 Ext. 137 Fax : (55-11)277-1534

KPMG -Corporate Finance
주소 : Av. Nove de Julho, 5.109 -9o. floor 01407-905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Jose Luiz Saicalli (Director)
Tel : (55-11)3067-1572/1573 Fax : (55-11)3067-1649

Price waterhouse Coopers
주소 : R. General Jardim,36 -Vila Buarque 01223-906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Davi Gordon (Manager of Marketing)
Tel : (55-11)236-4261 Fax : (55-11)236-3800

Trajan Consultores Associados & Editores
주소 : R. Plinio de Moraes, 58 - Sumare 01252-030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Marcelo Simoes Souza (Director)
Tel : (55-11)3873-1953 Fax : (55-11)3873-2019

Rappel & Associates International Consultants
주소 : Av. Princesa Isabel, 352 -2o. floor 40144-000 -Salvador - Bahia -Brasil
Contact Point : Mr. Eduardo Rappel
Tel : (55-71)247-5396 Fax : (55-71)247 -5396

Pinheiro Neto Advogados
주소 : R. Boa Vista,254 -9o. floor 01014-907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Helio Nicolleti (Director)
Tel : (55-11) 237-8400 Fax : (55-11) 237-8600
E-mail : pna@pinheironeto.com.br
Web-site : www.pinheironeto.com.br

Araujo e Policastro
주소 : Av. Brig. Faria Lima, 2894 -11o. floor 01452-002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Hee Moon, Jo
Tel : (55-11)820 -2566 Fax : (55-11)820-2120

Leite Correa Advogados
주소 : Al. Ribeirao Preto, cj. 111 -Bela Vista 01331-000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Osiris Leite Correia (Director)
Tel : (55-11)251-4577 Fax : (55-11)251-4303
E-mail : lcoreia@aasp.com.br

Matos Filho Advogados
주소 : Av. Paulista,1.499 -20o.floor 01311-928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 Jose Eduardo Queiroz (Director)
Tel : (55-11)3170-7666 Fax : (55-11)3170-7770
E-mail : mflaw@mflaw.com.br Web-site : www.mflaw.com.br

Tozzini Freire Teixeira
주소 : R. Libero Badaro,293 -18o. floor 01095-900 -Sao Paulo -SP -Brasil
Contact Point : Mr.Jose Luis Sales Freire / Mr. Shin Jae, Kim(한국인)
Tel : (55-11)232-2100 팩스 : (55-11)232-3100
E-mail : mail@tfts.tozzini.com.br
Web-site : www.tozzini.com.br

<해외투자유치기관>

기관명	**Investment Promo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ystem (SIPRI)-Ministry of Foreign Relations**		
주 소	CIENCIA TECNOLOGIA, Sqn 106 - Bloco I - apt.104, Brasilia, 70.742.090, Brazil		
전 화	55 61 4116565	팩 스	55 61 225245
Web-site	www.mre.gov.br		
E-mail			
기관개요	브라질 투자진흥 기술이전 시스템-브라질 외무부가 운영하는 투자관련 사이트		
Abstract			

기관명	**Ministry Of Finance**		
주 소	Esplanada dos Ministerios - Bloco P - 5Andar - Sala 515 - 70048-900 - Brasiia – DF		
전 화	55-61-412-2548/2549	팩 스	55-61-226-9084
Web-site	www.fazenda.gov.br		
E-mail	acs@fazenda.gov.br		
기관개요	브라질 재무부-세제 및 외환 관련부서		
Abstract			

기관명	**Banco Do Brazil(BCB)**		
주 소	SBS Quadra 3 Bloco B - Ed. Sede, P.O. Box: 08670, CEP: 70074-900, Brasilia, DF, Brazil		
전 화	61) 414-2401	팩 스	61) 321-9453
Web-site	www.bcb.gov.br		
E-mail	cap.secre@bcb.gov.br		
기관개요	브라질 중앙은행		
Abstract			

기관명	**Investment Promo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ystem (SIPRI)-Ministry of Foreign Relations**		
주 소	Av. Repblica do Chile, 100 Rio de Janeiro - RJ CEP: 20139-900		
전 화	(021) 277-7447 / 277-6978	팩 스	
Web-site	www.bndes.gov.br		
E-mail			
기관개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민영화 및 수출입 금융 지원		
Abstract			